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NOV 9 1982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74 1982년 11월 8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November 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나치전범 라우카에 추방령

유태인 1만명 학살혐의 「온」주대법원 역사적 판결

◆라우카의 최근 모습(왼쪽)과 나치시절의 모습.

나치 전범(戰犯)으로 서독정부의 수배령이 내려졌던 캐나다 시민 알버드·헬무트·라우카씨에게 4일 추방령이 떨어졌다.

지난 6월17일 연방경찰에 의해 윌로데일의 집에서 체포된 라우카는 2차대전중 리투아니안 유태인수용소에서 11,584명의 유태인 학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해 지난 6월에 체포된후 온타리오대법원은 4개월여의 긴 심리끝에 라우카씨는 서독에서 재판받도록 추방돼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 추방명령은 캐나다가 캐나다시민을 전범으로 간주 외국으로 추방하는 첫번째 케이스이다.

라우카의 변호사 윌리일·파커씨는 라우카가 캐나다시민으로 신헌법에 명시된 인권조항에 의해 추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에반스 판사는 신헌법의 인권조항은 개인의 권리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라우카는 15일간 토론토교도소(돈·제일)에 감금된후 서독으로 추방된다. 변호인측은 곧 항소할 예정이다.

4일 라우카의 최종심이 열린 유니버시티 애비뉴의 온타리오대법원 밖에서는 캐나다유태인보호위원회 회원들이 "나치를 잡아라", "라우카의 사형을 원한다"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데모를 벌였다.

법정 안에서 재판장 에반스 판사는 30분간 판결문을 읽은 후 "피의자가 유태인을 학살한 나치 전범이라는 많은 증거가 있었다"고 말했다. 에반스의 판결문중 추방명령이 낭독되자 라우카는 눈을 감고 잠잠히 있었다.

라우카의 변호인측은 라우카씨가 나치 전범인 라우카와 동일인물이라는 증거는 있으나 이 재판은 캐나다에서 행해져야지, 서독에서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와 서독은 79년에 범인인도협정을 체결, 양국법에 위배되는 범인은 자기 시민이라도 타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됐다.

◆해 설◆

수사 23년만에 개가

헬무트·라우카에 대한 수사는 근 23년이 걸렸다.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용의자 라우카씨가 서독으로 재판받기 위해 추방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 법률적 쟁점으로 남아있다.

나치전범 혐의자 라우카씨가 체포되기까지는 두명의 캐나다 수사관이 은밀히 작업을 벌여 서독, 소련, 이스라엘등을 왕래하면서 완전한 증거를 입수한 뒤에 행해졌다.

이 두 수사관인 연방검사 크리스·아머태십과 연방경찰 코퍼랄·예터씨가 캐나다 사상최초의 나치전범 체포에 개가를 올렸다. 이로써 캐나다 속에 나치전범이 있다는 캐나다의 유태인들의 주장은 사실로 입증되었다.

라우카는 서독정부에 의해 수배중인 리투아니안 수용소 13만5천명 유태인을 학살한 100명의 케스타포(나치 비밀경찰)중에 하나였다.

서독정부는 1959년 라우카를 41년과 43년 사이 리투아니안지방의 카우나스 캠프에서 행해진 1만여 유태인의 학살을 선동, 교사한 혐의로 수배했다.

1973년 서독정부는 추적끝에 라우카가 캐나다에 숨어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캐나다정부에 라우카를 체포하여 서독으로 보내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라우카가 발견되지 않아, 1978년 캐나다정부는 그가 기록은 없으나 죽은 것으로 간주, 서독정부에 알려주었다.

이때까지 서독의 리투아니안수용소학살사건 수사는 착착 진행됐고 라우카에 관한 정보가 계속 연방경찰(RCMP)에 보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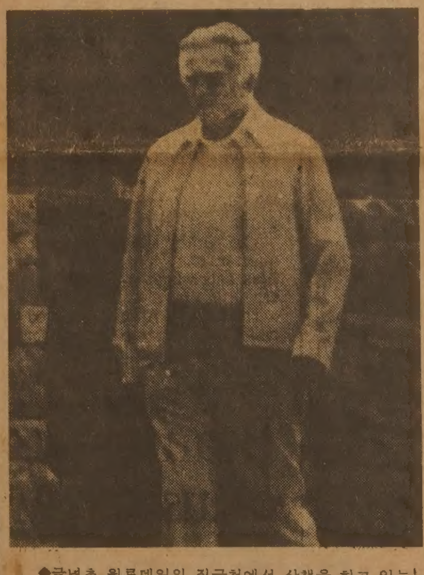
1980년 연방경찰 토론토지부에서 일반범죄를 다루던 예터형사는 오타와로 전근되어 이 사건의 기록을 접하게 됐다.

"무엇인지 있는데 알수가 없자 아주 답답했다"는 예터는 이미 수사가 끝난 기록을 좇아 처음부터 다시 추적했다.

수개월 지났으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가 지난 2월 윌로데일의 한 노인에게 시선이 갔다.

연방경찰은 이 노인을 주목하면서 은밀히 사진을 촬영, 서독당국에 보내고 수사자료등을 입수했다. 이 알버트·헬무트·라우카라는 73세의 노인에 대한 수사망은 더욱 좁혀졌다.

(계속)


◆금년초 윌로데일의 집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라우카의 모습. 이 사진은 예타 연방경찰이 비밀리에 촬영, 신원확인을 위해 서독정부에 보냈다.

"20세가 돼야 결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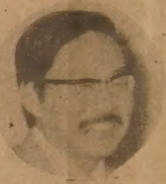
보사부 인구억제책이라고 주장

(서울5일=연합)한국정부는 인구증가억제책의 일환으로 법적 결혼연령을 높일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례 보사부장관은 5일 국회보사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정부의 인구증가에 대한 억제노력과 관련, 현재의 남자 18세와 여자 16세로 되어있는 법적 결혼연령을 남녀 공히 20세로 높일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억제책의 또하나의 방안으로 노동법상의 임산휴가는 자녀 2명까지만 한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내년초에 이를 법제화시킬 계획이라고 경제기획원 관계자가 말했다.

교육연구회 새 회장에 윤택순씨 선출 모국어 위원에는 한장환씨


◆윤택순씨

한인교육연구회는 지난 23일 있은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윤택순씨(토론토대학 물리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부회장은 윤승렬씨, 재무 및 서기는 오준상씨가 새로 선출됐다.

이날 교육연구회 총회는 또 토론토시교육위가 위촉해온 인종관계위원회 위원으로 윤승렬씨를, 종교문제위원회 위원으로 김창렬씨를 각각 선정했다.

한편 이날 실시된 토론토시교위 모국어교육자문위 선출에서는 지난 2년간 자문위원을 맡아온 한장환씨가 재당선됐다.

지금까지 한글교육·이민2세교육·대학진학문제에 관한 것등 한인코뮤니티의 교육에 관한 각종 문제점을 놓고 세미나나 워크숍등을 가져온 교육연구회는 회원 약 50명, 실행위원 20여명을 가진 단체로 지금까지 구상회, 신복균, 조성준씨가 회장으로 있었다.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회비는 연 10달러. 실행위원들의 정기모임은 매월 교육회관(College×Beverly)에서 있다.

슐크 미국무장관 내년초 방한

(LA지사) 조치·슐츠미국무장관이 내년초 한국, 중공, 일본을 방문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무성동아담당차관보의 경질을 계기로 미국의 대동남아정책의 일부 변화가 예상 된다면서 슐츠차관이 한국, 중공등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금주의 행사▶

- 11월8일(월)~14일(일) -

◆11월8일(월) 시의원 선거
◆11일(목) 하오6시30분 와이즈맨클럽 친교의 밤
곳: 토론토한인Y회관(931 College St. Tor.)
주최: 토론토한인와이즈맨 알파·베타클럽
연락처: 533-1166(김창열)
◆13일(토) 상오11시 사격선수권대회
주최: 재캐나다사격및수렵협회
곳: Toronto Sport Men's Assoc.
연락처: 791-0081(한), 755-7635(백)
◆13일(토) 하오8시 한인교향악단 제5회공연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 협연
곳: Ryerson 극장(43 Gerrard St. E. Tor.)
연락처: 모자르트음악학원(881-8211)
◆13일(토) 하오7시 대광고교동창 헌신예배
강사: 김창주 목사
곳: 새한장로교회(105 Wilson Ave. Tor.)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밥·뢰당수 무난히 당선 보궐선거서 주의원 돼

◇밥·뢰

밥·뢰 온타리오주 신민당 당수가 5일 온타리오주 욕·사우스 지구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 의석없는 당수의 위치를 벗어났다.

총투표자중 46%를 득표, 2위(36%)와의 표차를 2,500표 벌린 밥·뢰당수는 이번 선거결과는 보수당 정부가 지금까지 다소 게을러 유권자들에 실망을 안겨왔다는 점과 보수당정부의 진정한 정적은 자유당보다는 신민당임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9개월간 의석없는 당수로서 지내온 밥·뢰는 빠르면 11월15일부터 주의회에 출석한다.

욕·사우스 선거구에서 밥·뢰는 11,286표, 자유당의 존·눈찌아타 후보는 8,732표, 보수당의 바바라·자펠리스 후보는 4,410표를 획득했다.

욕·사우스주민이 아니라는 약점을 안고 있던 밥·뢰는 내년 2월경 선거구내로 이사한다.

욕·사우스 선거구는 1955년 이후 신민당의 도날드·맥도날드의원이 의석을 차지해온 곳으로 밥·뢰가 이 지역에서 출마하게 된것은 연방 하원의원직을 갖고있던 그가 9개월전 온타리오주 당수로 선출된뒤 출신구역인 브로드뷰·그린옷의 주의원직을 얻으려했으나 당시 이지역의 신민당 후보들이 사퇴를 거절, 신민당의 고참이던 맥도날드의원이 자기 선거구를 양도해준 때문이다.

34세의 변호사인 밥·뢰는 토론토대학 출신의 로즈(Rhodes) 장학생이었으며 1978년 30세의 나이로 연방의원에 당선된 뒤 계속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왔다.

신민당 재정비평가로 활약, TV나 방송에 자주 등장해온 그는 단정한 용모와 능란한 담화솜씨로 매스미디아의 각광을 받아왔다.

구독 신청은 (416)533·2361

오늘의 예금금리(10/19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투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1.5%		10.25%
90일	12%		10.75%
180일	12%	11.75%	10.75%
365일	12%	11.75%	10.7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마크(로고)
현상금공고

★회사명
(株)현영일국제경영콘설턴트
Young I. Hyun
International Management Consultants Inc.
○Human Resourses Management.
○International Capital Management.
○Business Valuation.
○Investment project for prospective immigrants.
○Management consulting for profit oriented enterprises. 투자]
※ Logo Letterhead 한글, 영문(단색)
Professionalism, integrity, reputation, and Creaditability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낼곳: 58 Talwood Dr. Don Mills, Ont. M3B 2P5
▲현상금액: 상당액의 사례금($500.-)
▲응모마감일자: 82년 11월30일까지.
국제경영 Consultant
공인회계사(C.A.) 현영일

김장철대세일

저희 식품점에서 김장쇼핑(100불이상)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배추 1BOX를 무료로 드립니다.
★한국산 고추가루·새우젓(육젓, 취젓)·멸치젓·황새기젓·김장용 대파·육쪽마늘·생강등 할인판매 합니다.
★김장김치를 특별히 주문 받읍니다.

한국식품점의 대명사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WILLOWDALE, ONT.
☎743-8270

慶北中高等学校
동창회정기총회공고

동문 제위께서는 이번 총회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82년11월13일(토) 오후7시
장 소 : Clinton House (693 Bloor St. W.)
연락처 : 274-2884 mr. 노
746-2471 mr. 정

(※새 주소록을 발간코저 하오니 새로 오신 분이나 등록되지 않은 분은 위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1982년 11월
慶北中高等学校
同窓会長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소련체조계에 「제2의 넬리·김」

12세 한국계 타티아나·김 유망주로

소련체조계에 제2의 넬리·김이 등장했다. 76년 몬트리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며 세계선수권 개인종합챔피언이었던 한국계 소련체조스타 넬리·김의 은퇴에 뒤를이어 타티아나·김이 유망주로 부상하고 있다.

금년 12세의 타티아나·김은 열한살때인 지난4월 런던에서 열린 국제 주니어대회인 「챔피언즈 올 1981」에서 개인종합 3위에 올라 앞으로 크게 두각을 나타낼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각국에서 초청받은 주니어 남녀선수 2명씩이 참가해 재능을 겨룬 이 대회서 그는 「또다른 김」으로 불릴만큼 관중들의 인기를 모았다.

그는 이대회서 파감하면서도 매우 예술적인 연기를 보였으며 특히 평균대에서 뒤로 도는 공중회전묘기에서는 최고의 난이도를 보였는데 운이 나쁘게도 한번 실수를 했다.

그는 관중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끌어 앞으로 틀림없이 스타가 될것』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이 대회 선수권은 파감하면서도 곡예같은 연기를 보인 크리스티나·그리고라스(루마니아)가 차지했다.

미국의 케이시·존슨은 우아하면서도 예술성이 높은 연기를 보여 크리스티나와 근소한 차로 2위에 올랐다.

우아한 매력으로 세계체조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넬리·김의 후계자로 보이는 타티아나·김은 국제체조연맹이 지난해부터 올림픽및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연령을 15세이상으로 제한, 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은 출전할 수 없다. 그러나 타티아나·김은 6년후인 88서울올림픽때는 18세로 체조선수로서는 다소 연령이 많으나 소련대표로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외지에서)

◇다정한 蘇聯의 연인들. 그러나 이들은 행운아이고 신랑감이 절대부족하여 一夫二妻制를 용인할 움직임까지 일고있다.

"남자 모자라 비명"

소련, 1부2처제 검토

남자 1백명에 여자가 1백70명꼴로 여성이 훨씬 많은 소련에서 남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남자의 중혼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소련의 신문에는 짝없는 여성들의 구혼 광고가 끊일날이 없고, 남자가 한번 광고를 내면 별 볼일 없는 남자라도 1백~2백통의 편지를 받는다. 이토록 남자가 부족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때 남자가 많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으나 보다 신빙성있는 이유는 『남자들이 여자보다 단명하기 때문』이라는 것.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가 알콜중독이 되어 아주 일찍 죽는 남자가 많다고 한다. 지난해의 한 통계에 의하면 70년대에 8백만명의 남자가 요절했으며, 20년전에는 남자의 평균수명이 66세이던 것이 지금은 62~63세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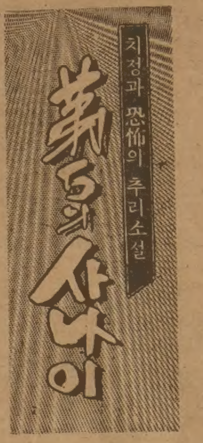
이쯤되자 소련당국에서는 아예 1부2처제를 법으로 정하자는 궁여지책의 아이디어까지 내놓고 있다는 소식.

외국 관광객 인삼 좋아해

(서울5일=연합)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가장 많이 사가는 품목은 인삼, 담배, 가죽제품순으로 나타났다.

5일 국제관광공사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말 현재 외국관광객이 공항및 호텔의 면세점에서 34억1천만원(4백50만달러)어치의 기념품을 구입했는데 이중 인삼이 13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담배는 7억8천2백만원으로 2위이며 3위는 가죽제품으로 1억4천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金聖鍾 작



<103>

29분의 1 ⑧

朴文子 만나려고 아파트 경비실에 잠복…

소년은 잔뜩 불멘 소리로 대답했다. 거기에는 엄마의 잦은 외출을 함의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

『여기 이사오기 전에…그러니까 저쪽 집에 살때 혹시 키큰 어른 본 적 없니? 이렇게 생긴 사람 말이야.』

마인은 피살자의 불확실한 몽타지를 내보였다.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아주 완강히 저었다.

『못 봤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사람은?』

다른 두장의 몽타지가 제시되었다. 그것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나이의 몽타지였다. 그것을 그리는데는 용달차 운전사와 슈퍼마킷주인의 도움이 컸다.

소년은 잠시 눈을 크게뜨고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세차게 머리를 저었다.

『몰라요!』

소년과 부인이 너무도 완강했기 때문에 마인은 오히려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이 애가 왜 이렇게 기겁을하지?

마인은 소년을 가만히 응시했다. 왕방울 같은 눈이 자기를 뚫어질듯 바라보자 소년은 금방 부서질것 같은 표정이 되었다.

『거짓말하면안돼!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야! 너 이사람알지?』

소년은 입술을 쭈뼛거리다가 다시 머리를 흔들었다. 눈에고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김반장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참, 착하게 생겼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는 거야.』

김반장이 범인의 몽타지를 가리키며 말하자 소년의 얼굴에 혼란이 일었다. 그러나 그것도 일순이었다. 소년은 정신을 차린듯 다시 머리를 완강히 저었다.

수사관들은 입맛을 다셨다. 공연히 어린애를 붙들고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자 더이상 물을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들은 집을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마인은 주인을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혼자 기다렸다가 주인을 만나보기로 하고 그 집 부근에 잠복했다. 김반장을 비롯한 다른 형사들은 제 4의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단지 안이라 마땅히 있을만한 곳이 없었다. 날씨마저 추워 밖에서 언제까지고 떨고있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경비원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좁은 경비실 안에 들어가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사람 좋아보이는 중년의 경비원은 난로 위에다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함께 드시지요.』

혼자 먹기가 멋적었던지 경비원이 그에게 라면을 권했다.

『아닙니다. 어서 드십시오.』

마인은 책상위에 쌓여있는 우편물을 바라보았다.

『그럼 혼자 먹겠읍니다.』

『네, 어서 드십시오. 그걸로 저녁을 때우시나요?』

『예, 자정이 지나서 또 하나 끓여먹지요.』

『그럼 밤새 여기앉아계시나요?』

『예, 내일 아침 여덟시에 교대하지요.』

『아이구, 고생이 심하시군요.』

『이 나이에 할수 없으니까 이 짓을 하지요.』

朴男 그림

패션계에 침투하는 동양계

토론토의 톱 디자이너 알프렛·성

최근의 세계 패션에 동양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 일본의 기모노나 중국식 칼라나 단추모양은 패션의 여러 면에서 변형, 이용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패션계에서는 동양계 디자이너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그중의 한명이 알프렛·성(Alfred Sung). 상해태생인 알프렛·성은 3년전만 해도 또 하나의 중국계인 뱅쿠버의 사이몬·장(Simon Chang)과 더불어 캐나다 패션계의 신인급으로 취급받아 오다 80년대 들어 일약 톱·플라스의 명성과 부를 누리게 됐다.

미국 패션계에서도 최고 신인 디자이너로 꼽히는가 하면 Chicago Fashion Week Fair에서 특상을 수상한 그는 토론토에서 가장 화려한 고급 부틱들이 들어서 있는 해즐튼·레인즈(Hazelton Lanes)와 이튼백화점 그리고 오타와의 홀트·렌프루(Holt Renfrew), 자신이 디자인한 의상들만을 취급하는 코너를 갖고 있다.

작년 한해에 2천만달러의 총수익을 올렸다는 알프렛·성은 어린 시절을 보낸 홍콩에서 부터 패션에 대한 꿈을 키워 왔다. 치과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권유를 무릅쓰고 이브·생·로랭, 켄조등을 길러낸 파리 디자인·스쿨에 유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뉴욕의 파슨즈 디자인학교를 거쳐 작은 회사의 디자이너 보조로서 출발했다.

토론토 패션계에 발을 들인 것은 약10년전. 처음에는 퍼시·린즌가죽제품회사등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밀텔·브라더즈회사와 손을 잡으면서 광범위한 시장조사와 치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알프렛·성이란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성공의 비결에 대해 알프렛·성은 한마디로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가 밝히는 캐나다 여성들의 패션취향은 하이·패션에 품질 좋고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 것이다.(토론토·선지에서)

◆캐나다 여성들은 하이·패션이나 지나치게 비싸지않은 좋은 품질의 옷을 즐기는 취향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토론토 디자이너 알프렛·성. 그는 최근 해즐튼·레인즈에 숍을 열었다.

715348번에 피닉스자동차

한국식품계 경품당첨

고려식품, 동양식품, 한국식품 본점및 3개 지점(동부, 서부, 미시사가)등 6개 한국식품 전문점이 지난 5월 중순부터 5개월여에 걸쳐 공동실시한 경품부 매출의 경품당첨자가 발표되었다.

8천달러 상당의 피닉스 2도어 자동차가 걸려있는 특등은 한국식품 동부에서 물건을 사고 받아간 715348번에게 돌아갔으며, 한국왕복 비행기표가 경품인 1등은 512806번이 차지했다.

또한 금성사 미국공장 제품 칼라TV가 상품으로 주어지는 2등상은 706192, 609168, 507958의 번호를 가진 3명에게, 밍크이불이 주어지는 3등은 113422, 610404, 506115, 207352, 300454, 712158번이 당첨됐다.

총 2만5천달러 상당의 상품이 걸린 경품추첨은 2일 하오6시30분 한국식품 동부지점에서 9만매의 교환권중에서 추첨되었다.

당첨자는 12월4일(토)까지 6개 식품점에서 상품과 교환해가야 한다.

충현교회 부흥성회

충현교회(240 Manor Rd, Toronto)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저녁 7시 부흥성회를 갖는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주제로 5일간 열리는 이 부흥성회의 강사는 박경남 목사이다.

충현교회 부흥회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전화 446-1211이나 483-0695.

◆바로 잡습니다◆

◆목사안수 받을 김인환 전도사.

본지 4일자 제1면의 〈목사안수〉 기사 사진중 김인환 전도사의 사진이 동명이인인 「스카이웨이 사무용구」를 경영하는 김인환씨의 얼굴과 바뀌어 나갔읍니다.

김전도사는 현재 오순절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읍니다.

겨울스포츠의 꽃 스키를 즐깁시다 ②

박경택(온타리오 스키협회회장)

◉초보자의 기본준비사항

캐나다는 스키를 하기에는 많은 훌륭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다. 풍부한 적설량, 수많은 인조코스등 돈을 적게 들이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스키는 멋만 가지고 안된다. 널다란 판을 타고 미끄러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얕보아서도 안된다. 초보자이던 몇년 경력을 갖고 있던 항상 주의해야 한다.

무슨 운동이든지 체력단련이 우선이다.

스키와 스키붓츠(Ski-Boots)의 중량(Ski 5~6Kg, 스키붓츠 2~2.5Kg) 때문에 각력이 약한 사람은 동작이 자유롭지 못하다. 각력이 약하면 기술을 습득하는데도 속도가 느리다.

체력단련 외에도 스키장비, 스키복장, 스키양말등 기본적 장비를 우선 갖추어야 한다.

1. 스키장비

보통 스키목판과 스키붓츠를 자주 구입하기는 어렵다.

초보자가 스키를 구입할 때는 자기 키와 엇비슷하거나 다소 짧게 선택하고 특히 스키붓츠를 자주 바꾸는 것은 금물이다.

벤트하는 것도 처음에 잘 맞는 것을 택하고 번호를 기억하였다가 다음에 그것을 또 빌리는 것이 좋다.

될수 있으면 장비 준비는 오랜 경험자, 또는 전문점에서 조언을 받는 것이 편리하다.

1)스키붓츠

우리나라 속담에 「글 못쓰는 사람이 붓을 탓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스키는 장비가 잘 맞아야 배우는데 유리하다.

스키붓츠와 스노우 붓츠(Snow Boots)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잘 맞는 부츠 택해
초보자는 체력단련 우선

스노우붓츠는 스키가 끝난뒤 신는 장화이다.

최신 스키붓츠는 거의가 합성수지 제품의 붓츠이고 다리의 안전을 위하여 붓츠목은 짧은 것(과거 붓츠보다는 길다)과 긴것(경골길이의 2/3정도)을 만들고 있다.

스키화를 구입할 때는 보행을 일부러 10분~20분정도 한 다음에 얇은 털 양말(두툼한 정구양말 정도)을 신고 붓츠를 신어서 꽉 맞는 것이 좋다. 초보자는 스키화 목이 너무 긴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신고 벗는 것도 불편하다.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덜어놓고 긴것을 신는 예가 있는데 기능적인 성능을 고려하여 자기 체력과 실력에 적합한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스킹을 끝마친 다음에는 인너붓츠(Inner Boots: 스키화속에 있는 신발)가 잘 건조되도록 보관한다. 스키화는 메이커(Maker)에 따라서 편하거나 불편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몇번이고 신어봐서 편한것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붓츠의 종류를 전문 종목별로 구별하면 알파인(Alpine)용과 거리경주용(Cross-Country), 점프경기용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계 속)

시 Cedar Height

이정원

바람이
뜨거운 해파(海波)를 일으키며 옵니다.
떡갈잎 냄새로 옵니다.
산산한 껍질이 벗겨지고 대지는 또 다시
축적의 검은 배낭을 짊어지겠지요.

마지막 아픔을 곱게 빻아
배앓고 있는 자연은
서러움을 운반해 오고
아름다운 단청색 실무리를
보슬 보슬 뿌리겠지요.
삶같이 어려운 통로를 뚫고
가슴 그득 채운 시선 앞에
우린 한번더
아픔의 목소리를
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겨울의 찬 피속에
뚜렷이 명암을 찍고있을
그런 바람이
뜨거운 해파를 일으키며 옵니다.
떡갈잎 냄새로 옵니다.

※Cedar Height : 스카보로의 지역명.

엄마 얘기가 맞구나!

"괜찮아요, 그냥 갈래요."
"얘는……혹시 비가 올지 아니?
귀찮더라도 우산 가져 가렴.
비가 오지않더라도 준비는 해 둬야해!"

교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금번 제가 다년간 쌓은 보험관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을 위해 성실한 일꾼으로 봉사드릴 것을 다짐하오며 많은 애용을 부탁드립니다.

강경범 올림

● 1978~1981 동해생명보험(주) 영업소소장.
○ 연수및 교육강사
○ 생명보험협회 Agent. 시험관리위원
※ 현 SOVEREIGN LIFE ASSURANCE COMPANY 근무

(B)233~6236 (R)279~7774

SOVEREIGN LIFE ASSURANCE COMPANY
A MEMBER OF THE CASCADE GROUP

Cloverdale Mall - Office Area, 250 The East Mall, Islington, Ontario M9B 3Y8

Gyung Bum Gang

니드·햄이 노려보며 "죽이겠다"

"햇빛이 그립다"…이철수씨 告白시리즈 ②

"한판붙자" 손짓 제스처 못본체 지나쳤지만…

운동장분위기 무거워지며 나를향해 한발두발…

죽음의 공포에떨며"절대죽을수 없다"이악물어

▲제2사건때문에 이철수씨는 자유의 세계로 아직 나오지 못하고있다.

(새크라멘토 LA지사—변홍진 특파원)

특히 니드햄은 동양인과 같은 유색인종을 싫어했으며 작업장에서 까지 나타났다.

하루는 내가 일하는 용접 작업장에서 멕시컨 죄수하나가 나에게 『니드햄이 너를 노리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체조하기 위해 운동장에 나갔을때 니드햄이 처음으로 나를 노려보면서 손짓을 했다. 드디어 트집을 걸기 시작한것이다. 이손짓에 내가 손짓하면 『한판 붙자』는 내용이 된다.

나는 못본척했다. 많은 죄수들이 내가 무슨 갱두목이나 처치하고 듀엘교도소에 온 줄 알고있지만 사실 나는 갱두목을 죽인 장본인이 아닌 것이다.

나의 직감에 니드햄이 나에게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았다.

뜨거운 태양열이 운동장을 덮고 있던 어느날 오후 내자리와 떨어져 있는 다른 편에서 니드햄이 나를 노려보며 『죽이겠다』는 시늉을 해보였다.

이날의 행동은 전번처럼 단순한 공갈형의 손짓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느꼈다.

그러는 한편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운명의 그날은 1977년 10월8일이었다. 이날은 정말로 기억하고 싶은 날이 아니다. 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나는 가끔 그때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니드햄을 어떻게 죽이게 됐는지는 약간 알려졌지만 지금은 내자신이 다시한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날은 무척이나 더웠다. 나는 소매없는 런닝셔츠만 걸친채 운동장으로 나갔다.

신체검사를 마치고 운동장으로 나가니 건너편쪽에 니드햄이 다른 죄수들과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었다.

어느 교도소나 마찬가지지만 운동장에서나 작업장 그리고 리크리에이션룸서도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백인, 흑인, 멕시컨 그리고 기타 인종등은 서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관할구역을 정해놓고 있다.

듀엘교도소의 좁은 운동장도 예외는 아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나는 동남쪽 구역 코너에 앉아 있었다.

언제나 하는 버릇이지만 나는 담배연기를 깊게 들이마시고는 내뿜으며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동그라미가 된 담배연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보며 다섯손가락에 하나씩 끼워 볼 수 없는가도 생각했다.

그때 내귀에서 이상한 감촉을 느꼈다. 운동장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운동장 저쪽편을 바라보았다.

니드햄이 중앙선으로 나오고 있었다. 나를 노려보면서.

교도소내 운동장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그선을 지금 니드햄이 넘어오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내가 죽어야만 하는가.

차이나타운사건에서 억울하게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내가 죽는다면 좋아할 사람은 미국경찰뿐이다.

무고한 나를 체포했던 그사람들이 영원히 마음을 놓겠지. 나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보통 1년에 캘리포녀주 12개교도소에서 평균 20명이 교도소내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내가 듀엘교도소에 들어온 이후 백인갱단인 아리안형제파와 멕시컨계인 뉴에이스트라·췌밀리파와는 견원지간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연히 유색인종들은 멕시컨계인 뉴에이스트라·췌밀리파에게 동정적이었다. (계속)

▲ 자동차 조각.

프랑스계 미국인 조각가 페르난데즈 알만씨가 중고차 60대, 콘크리트 1천5백톤을 배합, 4개월동안의 작업 끝에 완성한 조각품. 높이 18미터의 이 조각품은 현재몽셀 현대 박물관 정원에 전시되고 있다. (UPI)

〈유인형수필선〉

부끄러움

이글은 에드몬톤 거주 수필가 유인형씨가 지난주초 보내온 글이며, 이미 2일 앨버타주 총선거가 실시되어, 피터·로히드 수상의 보수당은 79석의 주의원중 75석을 확보했다. 로히드 수상은 지난 71년 이후 계속 집권, 주정부를 맡아오고 있다.

추수상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그런데도 팜플렛 정도나 붙어있을 뿐이다. 신문도 조용하고, TV도 그렇다. 언제, 누가 선거를 하는지 잠잠하다.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과열하지도 않는다. 대포알처럼 무서운 한표로써 심판을 한다. 비판과 공격만 잘한다고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임기간의 업적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후보자들도 자기가정부터 소개하고, 다음에는 세금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춘다. 터무니없이 황당한 공약은 하지 않는다. 그게 통할리 없다. 누구 주머니에서 그 부담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자기가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떠들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냉정하게 생각하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누가 주수상이 되건, 또 누가 주의원이 되건 우선은 신뢰를 한다. 믿지 못하는 곳에선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명예와 수치심이 발달된 곳이다. 선거자금 관계로 부정이 저질러질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잘 되어 있다. 이곳에선 투표하는 유권자가 오히려 후보자에게 자금을 회사한다. 한표도 찍고, 술 한병값도 기부하는 것이다. 만약 $50를 후보에게 지원했다면 $38에 대해선 정부가 세금공제를 해주니까 결국 술 한병값인 $12만 주머니에서 나가는 셈이다.

낙선이 되건 당선이 되건 빛지지 않도록 해놓았다. 어디서나 당선보다는 낙선이 더 많은게 정상이다. 빚진 주의원들이 늘어나면 부조리와 불신에 결탁될 수 있다. 정치자금이란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만들어 주었던가?

부슨 천국에라도 보내줄 것처럼 야단을 쳐보았자 부채를 짊어지게 되면 그 놈이 그놈이 되게 되어있다. 훈훈한 아량과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생겨날 터이 없다. 그렇기에 제일 먼저 근본적인 부정의 원인을 막아 버렸다.

이네들은 자신을 믿는 것처럼 공무원들을 신뢰하는 것이다. 만약 주수상이 속도위반을 하였다면 경찰은 벌금티켓을 뗄 것이며, 또한 경찰차가 개인용무로 샤프웨이 시장을 보았다면 당장 시민이 고발해 버릴 것이다. 모두가 동등하게 명예와 수치심을 지켜가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의 직업에는 긍지를 가지듯이 일단은 남의 일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 서로 믿는 것이다.

시민들 모두가 명예와 수치심의 판단에 따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엄격히 구별해 버리는 까닭에 부정이 고개를 쳐들수 없다. 공무원이야 말로 봉사자의 사명감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도록 온갖 안전장치를 겹겹이 만들어 놓았다.

거짓말을 하거나 우격다짐을 하는 주수상이 있다면 틀림 없이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것이다.

당선만을 위하여 그때, 그 순간만을 넘기는 정당은 여지없이 난파 당한다. 이네들의 선거는 오랫동안 싸워온 민중들의 투쟁방식인 것이다. 민중에게 힘이 있으면 부정과 부패를 이겨낼 수 있다. 민중에게 감시능력이 없으면 아부와 비굴이 설쳐댄다. 인권과 권리를 짓밟는 폭정이란 민중들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냉정하게 잘라버리지 못하는데 있다.

명예와 수치심이 지방색이나 친척이란 단순한 이유로 눈을 감아버린 곳에 있다. 그댓가로 엄청난 박해 속에 무서운 세금이 되돌아 온다. 속은 것이다. 믿을 수 없는 불신풍토란 따지고 보면 자신에게 있다. 불의와 부패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비겁성에 있다. 결국 자기의 권리는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다.

이네들은 비록 조용한 선거를 치르는 것같아도 말없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다. 첫출발인 당선보다는 그 과정과 업적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다. 언제나 민중에게 이상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후보자만이 성장할 수 있다.

「누가 부정부패를 만드는 것일까?」

혼자 출마해서 혼자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의 부끄러움이 만들어 준다. 남미의 어느 곳은 선거를 치르듯이 군사구데타가 있는 모양인데, 이거야말로 양심과 수치심과는 거리가 먼 혼돈의 사회이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마비되어 가는 곳에는 과열만이 남는다. 신뢰와 대화의 줄이 끊어진 곳에는 부끄러움 마저 없어지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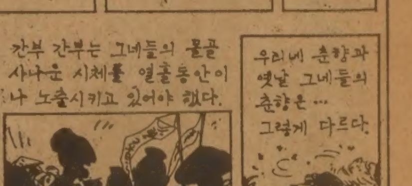
이네들의 선거풍경을 보고 있자니 가슴만 아파진다. 어려운 한 시대의 시련을 살아가더라도 부끄러움이 남아 양심을 두들겨 줘야 한다.

과열의 아우성만이 선거일 수는 없다. 저속한 선거의 횡포 앞에 굴종하고 무릎을 꿇었던 민중들에겐 무엇이 응답해 주었던가?

타협을 거부하고 냉엄하게 지켜보는 이네들의 선거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싱겁기 짝이 없다. 마이크가 날아가고, 멱살을 움켜쥐는 후보자가 있다면 곧장 구급차에 실려 정신병원으로 보내질 것이다. 어느 곳에서나 양심과 수치심은 같이 살아서 고고하게 지켜봐야 한다. 부끄러움이 없어지면 고발정신도 없어진다. 암흑과 폭력은 바로 자신의 부끄러움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것인가.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김장김치 주문환영
서부지점 ☎: 243-9544
해밀톤지점 ☎: 1-385-1485



훼미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정열의 가수
"박소영" 인기리 공연중!!
■"매주 목·금·토·일"
■ *영업시간 : 월·화·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금·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 2 시~새벽1시
거구장
5 BETHRIDGE RD.
ETOBICOCK
742-1618
이 한 영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民主黨、下院·州知事 우세

美 중간선거 開票 결과 어제下午7시現在

共和는 上院지배 무난 民主黨 南西部서 앞서

케네디、버드 上院…오닐 下院議長 당선

【워싱턴=李文熙특파원】 2일 실시된 미국중간선거의 잠정개표결과 民主黨이 예상했던대로 下院과 州知事선거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上院에서는 共和黨 현직의원들이 대부분 재선됨으로써 共和黨의 계속적인 上院지배가 무난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합 4백35석이 걸린 下院의원 선거에서 民主黨은 당초 예상보다는 큰 차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3일 하오5시 (한국시간) 현재 民主黨은 2백31명、共和黨은 1백41명이 각각 당선확정됐고 民主黨이 32개선거구에서、共和黨이 29개선거구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NBC ABC CBS등 미국의 3대방송들은 투표당일의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共和黨이 下院에서 29석을、上院에서 1석을 각각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은 下院의석을 잃어온것이 통례였으며 상실의석수는 평균12석이었는데 이번 共和黨이 30석안팎을 잃게될경우 평균치의 배를 훨씬 넘는것이다.

주지사선거에서는 民主黨이 17명당선 7명우세에、共和黨은 5명당선 5명우세를 보이고있다.

실업문제가 특히 심각한 미국東北部의 공업지역에서 民主黨이 우세를 보인 반면 실업문제가 덜 심각한 南西部에서 共和黨이 우세를보였다. 共和黨이 下院에서 30석을 잃을경우 그동안 共和黨과 民主黨 보수파의 연합세력이 추진해온 레이건 경제정책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질것으로 예상된다.

上院선거에서 오는 84년 대통령출마가 예상되는 에드워드·케네디의원(民·매사추세츠州) 로버트·버드上院 民主黨원내총무(웨스트·버지니아州)를비롯 81세의 존·스테니스의원등이 民主黨후보로 재선됐다.

한편 共和黨소속 上院의원중에는 리처드·루가트를 비롯 존·헤이즈(펜실베이니아州) 로웰·웨이커(코네티커트州)등이 재선됐다. 下院에서는 民主黨의 클레멘트·자블로키 외교위원장과 토머스·오닐하원의장이 재선됐다.

한편 교포들이 집중거주하고있는 캘리포니아州의 경우 공화당 독·메지언후보가 브라운 현지사를 물리치고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州지사 역시 공화당의 피트·윌슨후보가 톰·브래들리현로스앤젤레스시장을누르고당선되었다.

◇開票상황 지켜보는 레이건

레이건대통령㊧이 2일밤 백악관에서 부시 부통령, 폴·라졸트상원의원㊨(共·네바다州)과 함께 중간선거개표상황을 TV를통해 지켜보고있다. 【워싱턴 2日AP電=聯合】

巡訪지역 교민회장 全대통령、接見오찬

全斗煥대통령은 3일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아프리카·캐나다巡訪지역교민회장등 21명을 접견한뒤 이들에게 오찬을 베풀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해외동포 母國방문후원회의 劉彰順회장부부가 배석했다.

全斗煥대통령은 이자리에서『정부는 지금 범죄도없고 부정부패도 없으며 정당한 사람이 어깨를 펴고 살수있는 살기좋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룩하기위해 온갖 힘을 기울여가고 있다』고 밝히고『제5공화국은 출범이래 2년동안 모든 부문에걸쳐 안정이 확보되고 경제적 어려움도 잘풀려나가고있어 앞으로 1、2년후면 더욱 발전된 조국의 모습을 볼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擔稅率 外國보다 높다

經濟硏究院지적 中産層부담·附價稅率등 낮춰야

韓國經濟硏究院은 3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추어볼때 다른나라보다 높은수준에 있다고 지적하고 중산층에대한 세부담을 낮추고 부가가치세율을 인하、전반적인 세부담을 경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韓國經濟硏究院은이날『韓國조세문화의 반성과 稅制의 종합개선방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조세부담률이 80년현재 19.2%(對GNP기준)에 달해 다른개발도상국들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것은 물론 소득수준이 크게 높은 선진국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개인소득세율만보더라도 한국의 현행세율은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월등히 높은 美、日、西獨、프랑스보다도 오히려 높은것으로 분석했다.

韓國經濟硏究院의 분석에 따르면 82년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2%(對GNP기준)인데 대해 인도네시아는 15.6%(78년) 필리핀 13.9%(79년) 泰國13.9%(79년)로 나타났다.

또 日本이 22.8%、美國28·32%、西獨 31·6%、프랑스 32·1%등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높으나 국민소득의 상대적 격차를 감안하면 세금을 내고난 가처분소득은 우리가 크게 낮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오히려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가계저축에 대한 소득세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마련을 위한 장기성예금이자소득은 완전비과세 하거나 연간저축금액등 일정률의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산층및 저소득 가계의 소액금융기관 저축중 5백만원정도 금액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말고 근로자의 통근 주택 식사등 각종수당에 대해서도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세금은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범위를 확대하는등 지상배당세를 완화하고 배당소득에대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2중과세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 제조와 도매단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어느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소매、서비스、운송화물、음식숙박업등 과세와 납세가 어려운업종에 대해서는 일반거래세로 돌려 근거과세의기반을 확립함과 아울러 기본세율 13%를 시행세율10%를 모두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대상중 이미 국민생활의 필수품이된 설탕、발효유、흑백TV수상기、전기세탁기、취사용가스레인지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하고 만일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하더라도 흑백TV、전기세탁기、냉장고등에는 각국의 경우와같이 과세최저금액을 적용하고 특소세품목에 대해서도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건의했다.

겨우살이施策 點檢 金총리지시

金相浹국무총리는 3일국민의 越冬用연료와 식량의수급대책에 최선을 다해 특히 서민의 겨우살이준비가 원활히 되도록 모든시책을 재점검하라』고 각부처에지시했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3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在中華民國僑民會 金英賛회장外 3천3백弗

▲在中華民國僑民會(會長 金英賛) 一同=美貨 3천3백1달러、35만6천5백원(高雄僑民一同=美貨5백42달러、臺北韓人敎會 金達勳목사外=5백″、基隆韓人敎會 金南洙목사外=3백17달러、臺北韓僑學校 신계철교장外=美貨2백92달러、韓貨6천5백원、아리랑식당대표 이백림씨外=2백43달러、徐永錫씨=2백43″、在中大韓佛敎弘法院 경일스님外=2백7″、金鍾坤주중대사=1백″、金英賛고문회장=1백″、尹泰準경통자문위원=1백″、任京皓신세기해운대표=1백″、基隆僑民一同=73″、白宗浩고려식당대표=50″、李珍周씨=50″、吳相根관광공사소장=48″、金四玉재중영화인=48″、金光一태원물산대북대표=48″、權泰寶씨=48″、李春煥고려상회대표=48″、基隆韓僑주말학교 김백현선생外=36″、孟範柱효성물산臺北대표=24″、申今子씨=24″、鄭容奎씨=24″、金台用씨=24″、全香順씨=12″、李泰鉉 한리실업대표=20만원、申良雨새마을상회대표=10만원、李縉馥서울상회대표=5만원 【臺北支局접수】

◇金英賛씨

運河商事(株) 姜完錫대표外 1백17만원

▲運河商事(株) 대표이사 姜完錫씨外 임직원一同=1백17만6천55원

大然金屬(株) 일동 65만원

三旺綜合食品(株) 일동 50만원

裕洋貿易(株) 일동 50만원

한약회仁川支部일동 31만원

잠실고층520棟일동 12만원

樂友會崔鍾得회장外 10만원

世宗라이온스클럽 10만원

養士同志會 일동 10만원

▲大然金屬(株)대표이사 禹鍾明씨外 임직원一同=65만원 ▲三旺綜合食品(株) 任職員一同=50만원 ▲裕洋貿易(株) 任職員一同=50만원 ▲사단법인 대한한약회 仁川지부 이종필지부장외 회원一同=31만8천원 ▲잠실고층아파트520棟 주민一同=12만원 ▲樂友會(회장 崔鍾得)一同=10만원 ▲世宗라이온스클럽=10만원 ▲鍾路6街養士同志會회장 崔龍淳씨外 회원一同=10만원 ▲麻浦區孔德2洞23통(통장田聖得) 주민一同=7만2천8백원

▲城東區鷹峰洞 신설체육대회 모금분=6만6천5백원 ▲忠北陰城郡 甘谷面梧杏3里주민대표 安璟珠씨、金東植씨外주민一同=5만4천8백원 【長湖院지국접수】 ▲서울유치원(원장배동익)원아(대표심정보、이정원、이승진、인솔송명진)一同=5만3천70원 【소년한국접수】 ▲釜山보리빌協議會一同=5만원 ▲九老區加里峰2洞10통(통장李載鎬) 주민一同=3만9천원 【釜山지사접수】 ▲제일은행잠실지점직원一同=2만7천6백51원

◇고 침=3일자 본란 제목중「世運商街가棟建物主外」30만원은、世運商街가棟 建物主一同 30만원 (朴秀煥씨外)의 잘못이었음으로 바로 잡습니다.

本社모금 2次分 2億7千萬원전달

한국일보社는 1일 독립기념관 건립성금 2차분 2억7천5백59만9천56원을 비롯、美貨1만1천4백36달러54센트、사우디貨1만1천5백리얄、스위스貨 3천프랑、호주貨1천달러、독일貨 5백80마르크를 한국신문협회에 전달했다.

7개常委·豫決委질의·답변

"豫算 심의도 保留해야"질문

"내년輸出 13%증가예상"답변

국회는 3일하오 內務 經科 國防 文公 農水産 保社 交通등 7개常委를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이와아울러 豫決委를 열고 새해예산심의에 착수、金埈成부총리로부터 새해豫算案에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다. ★國會錄音3면

【豫決委】 金부총리는 예산안제안설명에서 『내년의 경제성장은 7·5%수준으로 높아지고 물가는 현재와같은 안정추세가 지속돼 都賣물가상승률은 5%선에서 유지될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그는『세계貿易量의 증가율이 올해의 제로수준에서 내년에는 5%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輸出이 금년보다 13%정도 늘어날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製造業부문의 생산및 投資증가가 유발될것으로 기대된다』면서『內需부문도 건설부문을 비롯 상승추세에있고 물가安定을 토대로한 실질구매력의 증대효과가 소비수요를 뒷받침하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金부총리는 또『通貨공급은 올해하반기에 다소늘어났으나 이는 第2金融圈과 私債시장의 위축을 보전했던것과 通貨속도의 둔화등에 기인한것이므로 이같은 요인이 완화되는 내년에는 正常수준으로 회복시켜나갈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金泰坤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통해『國債발행은 국민경제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도록하기위해 국민소득을 흡수할수있는 부문에 사용되도록하고 國債누증의 방지를위한 정책적배려와 함께 이의소화과정에서 예견되는 제반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中略) 한편 民韓黨의 李英駿의원은 實名制실시를 사실상 보류했으므로 정부가 實名制 실시여부를 분명히 하고 예산관계 세법개정안의 세율수정문제에 대해 정책방향을 분명히 밝혀야된다』고 주장했다.

【國防委】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短期사관학교설치법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예비군의 무기와 탄약、장비의 관리를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임할수있도록하고、경비임무수행자와 관책임자가 과실로 인해 무기、탄약과 장비를 분실했거나 탈취를당한경우 처벌할수있도록 하는것을 골자로하고있다.

【文公委】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과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각각 통과시켰다. 광고공사법개정안은 방송광고代行수수료를 언론의 공익사업이외에 문화예술 진흥사업에도 사용할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특별시와 직할시、그리고 道에 자문기구와 지방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문화예술진흥원이 기부금을 받을수 있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廣告公社 公益자금 83년 百83億원조성 李文公 밝혀

李振羲문공장관은 放送廣告公社의 公益자금은 81년 1백20억원、82년1백69억원이 조성됐다고 밝히고 오는83년에는 1백83억원、84년 1백99억원、85년 2백18억원、86년 2백41억원、87년 2백65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小委구성 空轉거듭

3黨총무、財務委정상화 幹事회의 一任

與野는 3일하오 3黨총무회담을열고 금융實名거래법안과 銀行法개정안등 8개법안을 심사할 금융관계법안심사11人小委구성문제로 空轉이 거듭되고있는 국회財務委를 정상화시키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타결을보지못하고 小委구성을 포함한 財務委의 일정변경등을 각黨간사회의에 일임했다.

이에따라 국회財務委는 4일상오에 있을 幹事회의와 총무회담을 통해 대체로 결말이나 금주중에 小委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8일까지 實名거래법안등 금융관계법안에대한 小委심사를 마치려던 民正黨의 당초계획은차질이 불가피해졌다.

蘇人에도 門戶開放 李外務 밝혀

李範錫외무장관은 3일『우리정부는 모든 국가에 門戶를 개방한다는 외교정책을 펴고있다』고 전제 『소련인이 우리나라에 입국코자 한다면 항상 환영한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날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일본외무성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최근소련인들의 잇단 訪韓이 韓蘇관계의 개선움직임이냐』는 물음에 『그들의 入國은 국제회의참석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韓·蘇관계가 접근한다고 확대해석할수는 없다』고 말한후 이같이 설명했다.

주간女性 구독신청 533-2361

社会漫評

아무리봐도 우리보따리가…

地平線

로제·마르탱·뒤·가르의 名作『티보家의사람들』의 무대가된 알자스는 프랑스에서도 깨끗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하나 그역사를 아는이는 그 슬픔도 안다.

▼1871년 普佛戰爭결과 알자스는 한때독일領土가 됐다. 학교에선 독일말밖에 배워주지 못하게된다. 아멜선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흑판 가득히 프랑스 말로 큰 글씨를 쓴다.『프랑스 만세』 ― 그리고 머리를 벽에 기댄채 손으로 작별 인사를 한다. 도데의 단편「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수업은 1차대전에서 프랑스가 승리하자 이번엔 독일어의 마지막 수업을 겪게 된다. 2차대전에선 다시 독일어·프랑스어로 뒤집히고 알자스사람들은 자연히 프랑스말과 독일말을 구분해서 쓸 줄 알게 된다.

▼우리의경우와는 사정이 많이 다르지만 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 53주년을 맞고보니 새삼스레 알자스의 비극을 되새기게 한다. 우리말과글을 빼앗긴채 일제의 압흑기를 겪은탓으로 우리사회의 각종법령과 제도속에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뿌리 깊이 남아있기때문이다. 일제36년동안 우리생활을 지배했던 제국주의 법제가 광복후에도 그대로 모방되는가 하면 일제의 후진적 법제도가 2차대전후에 일본에서는 오히려 청산되었는데 얄궂게도 우리나라엔 남아있는실정이라고 金哲洙 서울大法大교수는지적하고있다.

▼우선 검찰에서의 기소장작성방식이나 법원의 판결문만봐도 알수있다. 한글세대가자라 법조계에 많이 진출했는데도 일본식으로 용어를 해석해야 이해가 가는 글귀가 지금껏 상당히 남아있는 것을 누구나 느낄수있다. 한일법전을 비교해봐도 유사점이 너무나 많은데 놀란다. 근로 기준법같은것은 아예 번역에 가깝다. 법관양성제도、법학교육도 일본과 비슷한판이다.

▼克日을 요즘에 와선 입 아프게 누구나 외치지만 참된 克日은 일제잔재를 말끔히 씻고 우리문화、한글세대에 맞는 새 국상을 정립하는데 있다. 11월3일을 學生의날 (53년에 제정됐다가 73년에 폐지)로 復活시켜달라는 일부 건의가 있는가운데 참된 克日운동은 학생들의 참된 애국·애족정신과 우리 문화의 재발견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수 있음을 光州학생사건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본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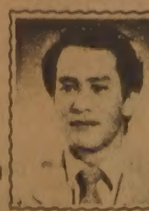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팩)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석
(R) (416)633-7892 (David Chae)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스타 미용실 동부영업 11월15일(월)부터

예약전화 741-4410(평일) 267-0333(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스타미용실을 많이 애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11월15일(월) 부터 동부 한국식품 플라자내 2800 Eglinton Ave. E. 에서 매주 월요일 영업하게 되오니 동부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부영업시간 : 오전10시~오후7시 2800 Eglinton Ave. E. (동부한국식품 플라자내)

※동부 예약은 미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영업시간 : 화요일~토요일 오전9시~오후8시 2437 Finch Ave. W.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中共외교政策 탈바꿈

實用주의·勢力균형·獨自性 추구

"同志아니면 敵"개념 포기
友好바라면 누구도 親交

◇방콕을 訪問중인 와인버거 美국방 시디·사베트 실라타이 외상(右)이 2일 방콕을 방문중인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을 위한 만찬에서 축배를 들고있다。2일간 예정으로 타이를 방문한 와인버거 장관은 3일상오 인도네시아로 떠나기에앞서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방콕2日AP電送=聯合】

【北京AP=聯合】중공은 실용주의와 세력균형및 독자성에 입각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공은 지난2개월동안 전례없이 金日成을 비롯 마거리트·대처 영국수상, 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수상, 지아·울·하크 파키스탄 대통령, 무아마르·가다피 리비아 대통령, 조르지·마르셰 프랑스 공산당수등 많은 외국지도자들을 맞아들였다.

중공지도자들은 거의 北京을 떠나 해외여행에 나서지않는것이 상례인데 외교업저버들은 趙紫陽수상이 금년12월 아프리카6개국을 순방할것 같다고 말했다.

한 서방외교관측통들은 중공이 현재 교조주의적외교정책이 종전보다는 많이 누그러졌으며 소련및미국과 보다 융통성있는 게임을 하고있고 우호관계를 바라는 누구와도 기꺼이 친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공은 분명히 60년대의 동지가 아니면 적이라는 개념의 외교정책을 포기했으며 우호국들과의 이견을 찾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교관측통들은 중공이 스스로 제3세계의 옹호자이자 사회주의및 공산주의운동의 지주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인접국 특히 소련및 인도와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趙紫陽수상은 앞으로 있을 인도와의 협상에서 중공이 중요하고도 적극적인 제의를 하게될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중공은 소련의 위성국가들이라는 이유로 수년동안 관계를 단절했던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등 동구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프랑스 서독등 서구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신규理事 10명승인 IPI 한국委

IPI韓國위원회(위원장·金聖鎭)는 2일하오 국내 理事會에서 張在九한국일보사장과 李雄熙MBC사장을 비롯한 10명의 신규회원가입을 승인하고 李雄熙사장을 韓國委理事로 추가 선임했다。

새로 가입한 言論人은 다음과 같다。

▲張在九(한국일보사장) ▲張在國(한국일보부사장) ▲李雄熙(MBC사장) ▲金基柱(MBC이사) ▲魯英一(MBC보도국장) ▲尹相哲(경향신문주필) ▲張明錫(경향신문편집국장) ▲李寧洙(서울신문편집국장) ▲金在鳳(매일경제신문주필) ▲申東鎬(KBS국제국장)

南部레바논에 美基地

쿠웨이트 通信보도 兩國정부 建設협의

【매나마=聯合】미국은 이스라엘-레바논국경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남부레바논에 항구적인 미군기지를 설치할 것이라고 쿠웨이트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날 요르단신문 보도들을 인용, 이 미군기지의 설치가 남부레바논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가지 방안중 하나라고 전하면서 이 기지는 엔·나쿠라항이나 남부레바논주둔 유엔평화군(UNIF)사령부에 세워질것 같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이어 美軍기지 설치문제가 모리스·드레이퍼 미중동특사를 중개로 레바논정부와 미정부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波노동자示威재개 바웬사釋放등요구

【바르샤바AP=聯合】수천명의 폴란드노동자들이 가톨릭의 萬聖節인 1일 그다니스크에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의 석방과 자유노조부활을 외치면서 맹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폴란드당국은 2일 노동자들에게 자유노조가 요구하는 파업과 시위에 일체 가담하지 말것을 호소하면서 새로운시위발생은 유혈사태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다니스크의 소식통들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80년자유노조탄생의 요람이었던 레닌조선소밖에서 「바웬사를 석방하라」 「자유노조」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벌인후 폭력사태를 빚지않고 해산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하룻동안 도합 8천명의 시민들이 레닌조선소 노동자기념비에 화환을 증정했으며 이들중 일부가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少領진급 空軍복무 臺灣간 中共조종사

【臺北聯合=聯合】한국을 거쳐 자유중국으로 망명한 中共軍조종사 吳榮根씨(25)는 소령으로 진급되어 자유중국 공군에서 복무할것이라고 郭汝霖 자유중국공군사령관이 2일 밝혔다.

吳씨는 지난달31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자유중국공군에서 근무할 의사임을 처음으로 밝혔었다.

宋長志자유중국국방부장은 吳씨를위한 만찬회 석상에서 吳씨가 자유중국으로 망명하게된 지혜와 용기및 결심을 치하하면서 강조하고 中共本土에 있는 吳씨의 동료들도 吳씨와 행동을 같이하라고 촉구했다.

軍 소수精銳化 中共, 백만명減縮

【北京AP=聯合】중공 당국은 2일 세계최대규모인 人民解放軍병력을 감축할 계획임을 처음으로 공식발표했다.

관영新華社통신은 이날 黨이론지 紅旗의 기사를인용, 軍이 소수정예화정책을 달성하기위해 재정비강화작업을 진행하고있다고 말했다.

紅旗는 軍의 감축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北京의 외교계에 나돌고있는 추측에따르면 그규모는 최고 1백만명선에 이를것으로 알려졌다。중공군의 현재병력은 4백20만명이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416)533·2361

메아리

도너츠度

金昌悅 <編輯委員>

문교부가 엄포를 놓았다。교수 定員의 50%를 확보하지못한 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불허하거나, 정원을 감축할것 (3일자 본보1면) 이라고 한다.

옳은 생각이다。교수가 모자라 교육을 제대로 못시키는 대학에 학생을맡길수는 없다。같은 발상으로 교육시설이 모자란 대학에도 같은 강경방침을 적용했으면 한다.

그러나 문교부의 강경방침이 엄포로 들리는데는 그만한 연유가 있다。교수와 시설이 태부족인줄 알면서 학생정원을 목부러지게 늘려준 것이 문교부다.

그 때문에 시설기준과 교수定員기준은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보완은 아직 보잘것이 없다。그런줄을 아는 문교부니까, 「50%」의 조치기준을 내놓은 것이다。이렇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강경조치가 가능할 까닭이 없다.

문교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전국대학이 확보해야할 교수는 2만2천명인데, 현원은 1만5천명, 充足率 68·2%뿐이다。그 나머지는 1만4백23명의 시간강사로 채우고 있다.

이 현황은 마치 기술자가 모자란 공장이나같다。여기에다 기계설비까지 모자란다면, 결함상품이 섞여 나올 것은 뻔하다.

나는 이런 공장을 도너츠공장이라 부른다。겉은 멀쩡한데 한 가운데가 텅비었으니…。대학이라면 도너츠大學이다.

그렇게 속빈 대학에서 골빈學士가 나온다고해도 야단이지만 그 보다 당장에 딱한것은 그대학에 들어가려 골을 싸매고, 어느 대학으로 진학할지 몰라 갈피를 못잡는 수험생, 그나마 합격했을 때의 등록금을 걱정하고 있을 가난한 학부형들이다.

문교부의 강경방침-엄포를 어정쩡하게보는 것은, 이들을 기억해서다。엄포에 그칠 강경방침 말고, 이들을 위해서 문교부가 할일이 따로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문교부가 대학의 시설과 교수현황따위, 각대학 각학과의 교육사정을 판단할 수있는 자료를 발표하거나, 대학이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다。말하자면 「도너츠度」의 공개다.

지금 고교에서의 대학선택·진로지도는 거의 합격가능성에 집약되고 있다。그 폐단을 고치기 위해 장래의 직업전망이나, 적성을 고려하라고 하지만, 그런 말만으로는 「붙고보자」를 당하지못한다.

이럴때 아쉬운 것이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붙고 볼만한 값」이 있는지를 가늠해주는 척도다。대학의「도너츠度」는 바로 그런 구실을 한다.

예컨대 의사지망인 학생이 있다면, 그가 「교수1명·시설充足度 0·2%」인 醫大-실제 그런 대학이 있다-에라도 붙고볼것인지 反問할 자료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야 흔치않겠지만, 다른 분야 학과에도 비슷하게 反問해볼만한데가 적지않은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기에, 대학의 「도너츠度」는 대학선택·진학지도의 요긴한 길잡이가 된다。이것 이상으로 「붙고 보자」의 허망함을 돋보이게 하는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대학의 「도너츠度」는, 한해 1백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그만한 댓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지금의 등록금제도로 하면, 같은 數의학생이 있는 대학은 모두 등록금 수입이 같고, 여타의 수입은 무시해도 좋을만큼 적다。그런데도 대학따라 시설이 차이지고 교원의 數와 質이 다르다。어떤 대학은 등록금 수입을 다른데쓴다고 볼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왜 대학마다 같은액수의 등록금을 내야하는가。그 것은 고기의 斤數를 따지지 않고 定額의 고기값을 내는 것과 같다。이것이 부당하다면, 「도너츠度」를 공개않고 등록금을 내라는 것도 잘못이다。그보다 斤數모자란 고기값을 또박또박 내야하는 학부형은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대학의 도너츠度는 꼭 공개되어야한다。그를 측정함에는 교수의 數나 시설의 坪數만으로는 부족하다。교수의 質을 보기위한 교수들의 學位·대우정도, 교수와 학생의 비율, 장학금의 액수·연구시설과 도서관의 장서數, 재단의 재정형편따위도 「도너츠度」의 측정자료로서 중요하다。등록금을 내는 학생이라면, 적어도 이정도는 알고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 대학에는 「對外秘」가 너무많다。그 「對外秘」속에 도너츠의 빈구멍이 도사리고 있다。문교부가 할 일은 이 「對外秘」의 폐습을 깨는 것이다。그리하여 不實대학에는 학생이 아니 간다는 풍조를 조성하는 것이 대학교육·진학풍토를 바로잡는 길이다。동시에 「도너츠度」를 기준하여 과감하게 학생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면 비단위에 꽃을 더하는 격이 될 것이다.

「도너츠度」의 공개는 이를 위한 일종의 公示제도나 같다。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表示제도를 연상하면 그 효용은 쉽게 짐작되리라 믿는다.

共和、慘敗면해 안도의 빛

州知事선 民主 6~8명 진출늘어

現職의원 90% 再選

◇投票場의 에드워드·케네디父子 에드워드·케네디상원의원(民·매사추세츠)이 2일 웨스트·하이매니스국민학교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아들 테드군의 투표를 도와주고 있다。【하이매니스(美매사추세츠州) 2日AP電送=聯合】

現地서본 美중간선거 共和·民主 得失

중간선거 답지않게 전국적인 관심을 일으켰던 1 9 8 2년 미중간선거는 예상대로 민주당의 우세로 막을 내렸다.

전국적 TV들의 3일 새벽3시현재 집계에 의하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1석을잃어 53석, 민주당은 47석 (현재는 공화…

不具의 월레스、州知事복귀 異變

앨라배마州

◇월레스

72년 遊說중 저격받아 下半身불수

조지·월레스(63)가 이번 미국의 예비선거에서 앨라배마州知事로 네번째 복귀했다。월레스의 州知事당선은 이번 선거가 낳은 이변가운데 하나이며 신체적 인불구와 가정적인 불우를 이겨낸 집념의 스토리다.

월레스는 7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가 유세도중 저격당해 하반신불수에 반귀머거리신세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했다。휠체어에 몸을 의지 79년까지 주지사임기를 마치고 은퇴한 월레스는 그전해 두번째 아내인 20년연하의 코넬리아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해 그의 정치생애는 물론 그의 존재조차 망각속에 묻히는듯 했다.

그런 그가 이번 앨라배마주지사선거에서 1 8 7 4년이후 최초의 공화당주지사를 노리고 출마한 …

記者의 눈

공무원과 「事大」배격

開放化시대의 새吏道방향

공무원윤리헌장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생활과행동에 지침이되는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 30개항중에서 『확고한민족주체의식을 가지고 事大主義사상을 단호히 물리친다』고 규정한 主體의식항목이 눈길을 끈다.

…

[河長春기자]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황
536-6250 호세환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864-9347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東아시아力學에 「새構圖」바람

밀리던 蘇聯勢復元 中共은 實用외교로

中·蘇 20년냉각관계에 溫氣스며 美·日·中 類似3각구조 변화조짐

뉴스診斷 金炳武 外信部차장

베트남에서 남지나해에 이르기까지 東아시아에 새로운 構圖가 胎動하는 조짐이 차츰 선명하게 나타나는것 같다. 이 새 구도는 닉슨 독트린에 이어 아시아 제국으로 하여금 각각의 균형을 일으켰던 이른바 차이나 쇼크이후 10년만에 주목을 끄는 새로운 전개다. 10년전 차이나 쇼크가 닉슨이 찾아간 北京에서 비롯되었듯이 요즘 꿈틀대는 새로운 構圖의 중심은 역시 北京인것같다.

上海성명이후 東아시아는 미국과 일본, 소련 중공이 4모서리를 당기면서 균형을 취해온게 사실이다. 이 균형은 78년 美·중공 관계정상화로 기울기 시작해서 레이건행정부가 들어선이후 일본을 極東방위에 바짝 끌어들임으로써 美·日·중공을 잇는 축으로 아슬아슬하게 기우는듯 싶었다. 그게 바로 지난 1년남짓 보인 현상이었다.

그사이 東아시아에서고립된 소련의 모습은 여러각도에서 목격되었다. 소련의 고립을 가속시킨 힘은 무엇보다도 미국 제1주의를 들고 출범한 레이건 행정부에서 나왔다. 그리고 소련의 아프간침공은 레이건행정부의 군비증강을 이유있는것이라 일부에서받아들이게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 東아시아지역에서 눈에 띄는 변조는 美·日·중공의 협력관계가 강화된 결과로서 나타나는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소련이 두려워한 擬似3각동맹에서 중공이 이탈하면서 아시아의 새構圖는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어쩌면 東아시아에서 흔들렸던 세력균형이 復元되고 있어 오히려 아시아제국에 안도감을주는 일면도 있다.

하지만 중공의 이탈이 소련과의 접근을 동반하고 있음으로 해서 아시아제국에 다소간 정책조정의 과제를 새로 안겨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美·中共화해이후 아시아제국의 외교정책은 어디까지나 中蘇간대립이 상당기간 지속될것이라는전제아래 수행돼 왔기 때문이다.

중공이 소련부외상 레오니드·일리체프를 北京에 맞아들여 해묵은 국경문제의 거듭을 재개한 10월초순께만해도 美국무성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었던게 분명하다.

지난22일 로이터통신이 국무성관리들한테 받아낸 해석을 보면 중공은 어디까지나 국내정치상황을 타개하는 돌파구로서 소련과 대화를 트고 있으므로 두나라 사이가 크게 좋아질 전망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그 관리들은 또 美·중공관계가 대만무기판매시비이후 疏遠해진 틈을 비집고 들어와 아주 파탄시키려는게 소련의 속셈이라고 부연했다. 그들은 소련의 離間공작은 아무래도 성공할수 없을것이라고 단언하다시피했다.

◇杭州여행을 떠나는 鄧小平(右로부터 2번째)을 北京공항에 배웅하러나온 中共지도부。 소련과 관계개선의 길을 택한 이들의 결정으로 아시아주변국들은 정책조정이 필요하게됐다。

이처럼 미국측이 중요성을 깎아내린가운데 열린 中·蘇회담은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3주가까이 계속된끝에 일리체프는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다음 회담을 모스크바에서 속개한다는 양국발표가 그 뒤를 따라 나왔다.

이번 中·蘇회담이 어떤 뚜렷한 문제를 타결해놓은것은 없었다. 20년을 두고 냉각되어온 두나라관계는 그만한만남을 가지고 적대의 담장이 무너질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中蘇회담이 美국무성관리들이 보았듯이 쌍방이 다른각도에서 미국에 경고를 주기위해서 벌인 전술적 示威에 그치지 않은것이라는데 있다. 중공이 이번 일리체프를 맞아들인것은 중공이 지난1년간 모색해온 외교路線의 조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와있음을 방증하는것이다. 중소회담의 재개는 그러니까 實用주의와 균형과 자주성을 모토로 한 새로운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것이지 단기적 목적을 노린 잔재주는 아니라는 말이 된다.

일리체프에 앞서 중공이 부산하게 北京에 맞아들인 얼굴들을 살펴보면 그런판단은 상당한 근거를 찾을수 있다. 올해들어 중공은 영국수상 마거리트·대처를 비롯해서 스즈끼 일본수상, 지아울 하크 파키스탄대통령, 칼·카르스텐 서독대통령, 가다피 리비아대통령과 북한의 金日成을맞이했다. 정부수반은 아니지만 프랑스 공산당수 마르세도 北京을 다녀갔다. 친소로 바짝 기울었다고 해서 지난17년동안 등을 돌렸던 프랑스 공산당이나 가다피를 맞이한것은 그중에서도 돋보이는현상이었다.

그것은 역시 親蘇성향 때문에 거듭 거절했던 알바니아의 求愛를 뒤늦게 받아들여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과함께 중공외교에 듬뿍 가미된 현저한 신축성을 대변하고 있다.

중공은 미국과 일본 西歐와 함께 소련침략을 대항하자는 옛口號를 더 이상 외치고 있지 않다. 미국과의관계를 일단멀져놓은 중공은 이와 반비례해서 西歐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있다. 그리하여 蘇聯가스管 건설참여문제를 둘러싼 美·西歐간 분쟁에 있어서 중공은 거침없이 西歐편을 들고 있다.

가스를 西歐에 공급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소련의 군비증강에 보탬이 되어 멀지않아 禍를 불러들일 것이라는 레이건의 경고에도 중공은 더이상 맞장구를 치지 않는다. 소련군비가 강화되면 1차적으로 불안해할 중공의 태도는 믿기 어려울만큼 크게 변하고 있다.

적과 동지를 딱잘라 구분해서 전개하던 60년대 중공외교의 잔재는 70년대에 이미 사라졌지만 요즘와선 오히려 적극성을 띠면서까지 전세계 여러나라를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런 外向性중공외교의 표적에서 한국이 이스라엘과 南阿共과 함께 빗나가 있는것은 우리로선 아쉬운감이 있다. 하지만 분단상황의 한반도를 보는 中·蘇의 이해가 영원한 相衝관계에 있는 이상 중공이 취하는 그런 폐한는 풀리기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鄧小平의 實用주의를 국제관계에 본격 代入하는것으로 볼수있는 路線수정이 80년代의 분명한 흐름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는 이상 아시아제국이 이에따른 정책조정을 피하는것은 당연한일이다. 다만 그런 조정은 닉슨 독트린이나 차이나쇼크때보다는 훨씬 안정된 정세아래 진행될수 있다는건 다행인것 같다.

中·蘇관계는 이제 重症환자의 초기회복기에 있다고 할만큼 실질적 진전은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中·蘇회담은 아시아제국의 눈으로보면 2가지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것같다.

그중 하나는 중공이 소련을 팽창주의 침략세력으로 몰아 세우던 어조가 후퇴했고 또하나는 소련과 관계개선에 필요하다면 베트남과의 동맹관계를 얼마간 희생시킬수도 있다는의사를비친것이다.

◇베트남 공산당서기장 레·두안을 접견하고있는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

중공의 이런 태도변화는 소련이 중·소국경지대에 배치한 병력의 상당수를 東으로 사할린쪽으로 이동시킨 것을 우호적 제스처로 보는데서 나온것 같다. 소련의 병력이동은 미국으로부터 1천마일해상방위를 떠맡도록 끈질기게 압력을 받아온 일본을 견제하자는데 1차적목표를 두고있는것으로 보이나 어쨌든 중공측에서는 반가운 조치임에 틀림없다.

소련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얼마간 중공쪽 요구대로 격하시키려는 움직임은 라오스에서 우선 목격되고 있는것같다. 소련은 라오스에들어와있는 베트남 고문관과 맞먹는 고문관을 라오스에 최근 투입한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에 대한 베트남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줄이려는 계산이다. 인도차이나의 覇者는 베트남이라고 하는 하노이측의 인식에 기습을 가한것이다. 인도차이나를 자신의 영향권아래 두려는중공과 베트남은 이미 한차례 싸움을 벌인 사이다.

소련 중공의 흥정에 희생을 입지않으려고 베트남이 안달을 하는건당연하다. 중·소회담이 열리는것과 때를 같이해서 소련은 베트남국가원수 트루·롱·친을 모스크바에 불러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중·소화해의 속도에 정비례해서 소련·베트남관계는 약화될것을 내다볼 수 있다.

소련은 중공과 화해를 위해서 중공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아프간철수는 응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베트남과의 관계는 얼마간 회생시킬수 있다는 언질은 중공이 요구하는대로캄보디아주둔 베트남군을 철수시키도록 하노이에 압력을 가하리라는다짐으로 해석하는 업저버들도있다.

그렇게되면 흔들리는 베트남의 동정이 주변국의 관심대상으로더 부각될것이다. 때마침유엔에서는 헹·삼린 현캄보디아정권의정통성을 부인하고 시아누크를정점으로한 망명정부에 代表權을주었다.

한편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처음으로 동남아를 순방, 7함대와 현지국가 해군의 기동훈련계획을 협의했다. 캄란灣을 중심으로 강화되고있는 소련군사력에 대항하려는 노력이다.

美·蘇의 군사력강화와 소련·중공간의 계산된 접근으로 아시아 여러나라는 다각도로 신경을쓰게 되었다.

한국일보 詩壇

한盞의잎차를마시다가

李 閨 豪

한 盞의 잎차을 마시다가
만나는 바람은
透明의 사랑빛이다.
검은 머리칼도
검은 눈동자도
살빛 戲弄도
투명의 사랑빛으로
그 바람 안에 모인다.

한 盞의 잎차를 마시다가
만나는 당신은
물빛 그리움이다.
가버린 세월도
잊혀진 女子도
다가올 입맞춤도
물빛 그리움으로
당신 안에 모인다.

한 盞의 잎차를 마시다가
만나는 別離는
千年의 洞窟이다.
서러운 눈물도
다감한 말씀도
살빛 體臭도
千年의 洞窟 속에서
石筍으로 피어난다.

戰後세계와人物 <13>

닉슨이 본 激動 現代史의 主役들★

낫세르

이집트 國民에 魂과 긍지 심어줘

統一아랍 꿈꾸며 이웃국가에 革命수출

◇회교성지 메카를 방문, 잠잠이란 聖水를 마시고있는 낫세르. 그는 통일된 아랍국가를 건설하여 그지도자가되려는야망을가지고있었다.

1952년 이집트 파루크왕조를 몰아냈던 군사쿠데타를주도한가말·아브델·낫세르는 쿠데타성공 2년뒤에 수상에 취임, 모든 실권을장악했다. 혁명당시 보잘것없는 육군장교였던 낫세르는 혁명초기에국민에잘알려진 모하메드·나기브장군을 표면상지도자로 추대했었다.

그러나 낫세르는 2년뒤에 나기브를 구축해 버렸다.

56년 낫세르는 이집트대통령이되었다.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낫세르의 리더십은 불꽃처럼 화려한것이었다. 그는동동의 하늘을 날으는 하나의 유성과 같았다. 낫세르는이집트만의지도자가 아니라 아랍세계전체의 지도자였다. 낫세르는 모든아랍국가의정치에 사사건건개입했다. 쿠데타를 음모하고 암살계획을 세우기도했다.

이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낫세르를 지도자로 하는 통일된 아랍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낫세르는 이 과정에서 절친한 친구뿐만아니라 불구대천의 원수도 많이 만들었다. 개성이 강한 낫세르에 대해 중립적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퍽 드물었다.

낫세르의 성격은 변덕스럽고 참을성이없었으며 唯我獨尊적이었다. 독재자에 딱 알맞는 성격이었다.

낫세르의 엄청난 야심은 이집트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급박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좋은 장애가 되었다.

대부분의 이집트국민들이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낫세르는 빈약한 이집트재원을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해외진출에다 퍼부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굽힐줄 모르는 好戰적태도는 아랍세계에서의 낫세르입장을 반석처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이는 1967년 6일전쟁에서 이집트를 처참한 패배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결정적 요인이되었다.

낫세르는 사우디의지원을받는 예멘정부를 전복시키고 이집트괴뢰정권을 세우기위해 5년동안 예멘과 값비싼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낫세르의 이러한 야심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국내에서는 광범위한 토지개혁정책을 추진했다. 낫세르는 번영과자유를향한 이집트국민들의 기대감을 잔뜩 높여놓았다. 그러나 막상 그가 죽었을때 이집트국민들은 역시예전처럼 가난했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이집트 형무소가 정치범들로 가득찼다는 사실정도였다.

63년 나는 낫세르를 처음만났다. 내가 아내와 두딸과 함께 유럽과지중해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을때 낫세르는 우리가족을 그의집으로 초청했다. 낫세르는 그때까지는 카이로 근교에 있는 한 보잘것없는 방갈로에 살고있었다. 그방갈로는 낫세르가 혁명전부터 살아온 집이었다.

마르고 헌칠한 용모에 군복을 입고있었다. 신장은 1m80㎝정도, 매우 강렬한 인상을주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낫세르는 매우친절했다. 낫세르는 열렬한 선동정치가였지만 사생활에있어서는 정중했고 합리적이었다. 그의가족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나서 서재로 안내한다음 링컨선집을 보여주었다.

낫세르는 아이젠하워대통령이 56년 수에즈운하위기때 이집트를 구원해준데대해 몹시 고마와하고있었다. 그의 말씨는 매우 부드러웠고 그의행동은 무척 위엄이 있어보였다. 높은 지적수준과 풍부한상식을 가졌다고 직감할수 있었다.

그는 이집트국민을 잘살게만든다는 투철한 신념을가지고있었다. 그는 나에게 최근의 국제정세와 소련지도층의 의도에대해 묻고 나의 대답을 주의깊게 경청했다.

당시 이집트는 소련과 밀착되어있었다. 낫세르는 나에게 소련이 이집트에 군림하는것을 바라지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낫세르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희망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그는 우리 가족에게 자신의 최대 업적중 하나인 아스완댐을 구경해 달라고 간청했다. 우리는 흔쾌히 이에 응했다. 낫세르는 그의 전용 비행기를 내주었다.

낫세르는 아스완댐이 순전히 이집트인 손만으로 건설되었다고 자랑이 대단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스완댐을 운영한는 기술자 중에는 이집트인이 한 사람도 없고 소련기술자 일색임을 즉시 알수 있었다.

낫세르는 그의 전성기였던 60년대에 국제적 사건에 닥치는대로 개입했다. 아랍국가에 이집트식 혁명수출을 기도하는가 하면 예멘내전에 갈수록 깊게 말려 들었다. 국내에서는 이집트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었고 정치탄압은 그 도를 더해갔다. 낫세르는 이집트에서 소련영향을 불식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집트와 소련간의 정치·군사적관계는 갈수록 긴밀해져 가고 있었다.

◇낫세르대통령이 역사적인 수에즈운하국유화를 선언한 후 이를 열렬히 환영하는 국민들사이로 승리의 행진을 벌이고 있다。

낫세르는 혁명의시기가 일단끝나면 혁명과업을 다지는 시기가 와야한다는 사실을 결코 믿지 않았다. 그는 죽을때까지 혁명가로 남기를 원했다.

그의 汎아랍주의운동은 확실히 효과있는 슬로건이었다. 그는 이운동을 추진하면서 아랍인들에게 동일체의식과 긍지를 새롭게 심어 주었다. 그러나 그가 평생동안 주장했던 이스라엘에대한 증오와 서방세계의 불신은 창조적이라기보다는 파괴적이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낫세르의 이같은정책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와의 증오를 증대시켜 전쟁을 가져왔고 이집트가 소련에 크게 의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했다.

가난한 우편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던 낫세르는 영국식민지배에 대한 뼈저린 증오속에서 성장했다.

그는 쿠데타로 집권했을 때 왕조의 잔재와 함께 무엇보다도 영국식민지배의 유산을 떨쳐버리는것을 최우선 목표를 삼았다.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에서 철수를시작하자 낫세르는 이집트가 이 힘의 공백을 메워야한다고 생각했다.

거듭된 戰爭으로 경제파탄시켜

낫세르의 등록상표로 통하는 汎아랍주의는 낫세르를중심으로한 反식민주의이자 反서방주의 였다. 낫세르는 소련과 제휴함으로써 서방에 대해 방심의 虛를 찔렀다. 이집트국민들은 낫세르의 이러한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낫세르가 갈수록 걷잡을수없고 무원칙적으로정책을 추진해나갈수록 이집트 국민들은 더욱더 열성적으로 그를 지지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낫세르는 이집트국민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켰고 이집트국민들은 낫세르의존재부각을 통해 자기자신의 존재도 함께 실감할수 있었다.

낫세르는 이집트국민들에게 잠자고 있던 혼과 기백과 긍지를 일깨워 주었다.

낫세르는 70년9월 심장마비로 急逝했다. 그때 나는 지중해에서 美6함대기동훈련을 지켜보고있던 중이었다. 비행기안에서 낫세르가 죽었다는 긴급보고를받았다. 조문사절로 카이로에 갈까 생각했으나 그건 현명치못하다는 결론을얻었다. 당시 이집트는 소련과긴밀한 관계를가지고 있었고 미국에대해서 몹시 적대적이었다. 나는 나대신 다른사람을 조문사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낫세르의 장례식은 세계가지금까지 보아온장례식중 가장 애도에찬 것이었다. 5백만 카이로시민이 거리로몰려나와 그의 마지막을지켜보았다. 낫세르서거에 실망한나머지 자살하는 이집트인이 속출했다.

베이루트에서 발행되는 불어신문 「르·주르紙」는 「1억의 아랍인이 졸지에 孤兒가됐다」고 낫세르의 죽음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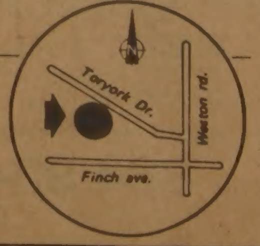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NORTH YORK AUTO BODY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24시간 토잉써비스(☎ : 745 : 7400)
*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 (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215 TORYORK DR.
One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d.
☎(店) 749-0555
(宅) 881-4053
송 대 헌



맛사지

(near airport)
MISSISSAUGA

史上최대「共榮채권단集會」진풍경

4千8百명중 7백여명 몰려

◇李·張사건에 관련, 법정관리로넘어간 共榮토건의 정리채권등을 조사하기위한 1회 재판이열리자 채권자 수백명이 몰려들어 서울민사지법마당을메웠다。 재판부는 대상채권자의수가 5천명선에 육박하자 이들을 3~5백명단위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키로했다。

「작은 손」5천…

사법사상 최대규모의 채권단집회가 열렸다.

李哲熙·張玲子부부어음사기사건과 관련, 법정관리에 넘어간 共榮토건(법정관리인 禹在九동해생명사장)의정리채권조사를 위한 채권단집회가 3일상오10시 서울민사지법합의16부 (재판장 安又萬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는데 이날집회는 李·張부부 어음사기사건여파로 共榮토건이 걸머진 최대의「채권파동」을 정리하는과정에서 생긴것.

이날집회에는 채권단 구성원도 은행원 가정주부 사채업자등 가지각색으로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진풍경을 보였다.

共榮토건은 李·張사건직후 법정관리로 넘어갔는데 서울민사지법이 지난8월 18일부터 10월18일까지 두달동안 채권신고를 받은결과 채권액이 무려 5천5백2억원에 이르렀었다.

이액수는 사법사상 최고의 채권액으로 법원이 共榮토건에 대한 회사정리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조사한 자산평가액 3천6백53억원의 2배에가까운 액수였다.

이날집회에서 관리인 禹사장은 채권관계인들에게 회사가 정리단계에 이르게된경위와 자산상태, 共榮토건의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및 앞으로의 경영계획등을 보고한데이어 재판부의 정리채권조사가 있었다.

재판부는 지난번 채권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자가 4천8백53명에 달했던 점을 감안, 동시에 이들을 수용할수 있는 법원시설이 없기때문에 첫 집회를 현사대법정과 법원강당등 두장소에서 2시간 간격으로 3백명씩만 참석시킨 가운데 연속적으로 열었다.

이날 첫집회가 열린 대법정 밖에는아침일찍부터 은행·단자회사관계자, 사채업자, 가정주부등 채권단이몰려 미처들어가지못한 사람들은 1차로 집회에 참석한사람들의 결과를 기다리며 채권자복에 신경을 곤두세우는모습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채권신고자 4천8백여명의 7분의1정도인 7백명정도였으나 이인원만해도 큰사건재판에 몰려드는 방청인보다 2~3배많은 숫자인데다 한사람한사람이 모두 관련자들이기 때문인지 재판정안팎이 열기로 가득찼다.

이날 예상보다 참석자가 적었던것은 불참자도 불이익을 받는게 아니며 채권만인정되면 앞으로 재판부의 공고에따라 변제받을수 있기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회에서 채권관계인의 발언내용도 이해관계에따라 각양각색이었다.

약기업씨는『신고자명부와 주소, 액수등을 적은 일람표를 배부해 채권자 협의체를 만들어 회사관리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이동정씨도『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고 채권단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또 박기창씨는『채권변제 확정순위를 결정해 달라』면서『극빈자·퇴직자등 영세피해자를 최우선순위로 해야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사채업자로 보이는 한 채권자는『나는 단자회사에서 어음을 할인했다』면서『순위는 똑같이 적용해야한다』고 반론을 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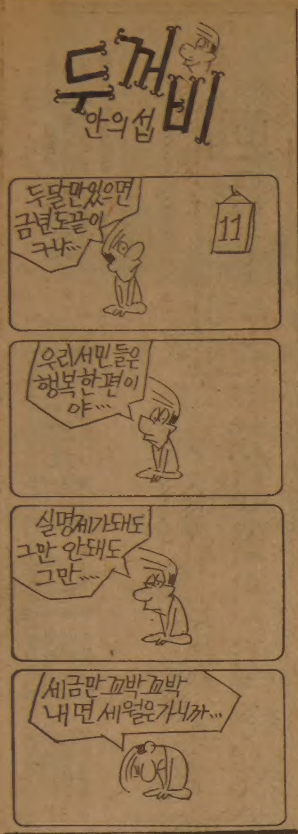
이밖에도 대부분의 발언자들은 변제방법과 변제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다음 2차집회에서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변제시기및 변제방법에 대해 채권단과 구체적으로 협의토록 할 예정인데 다음 집회는 이날열린 1차집회때보다 훨씬더 가열될전망이다.

이날채권조사에서회사에의해 부인된액수는 신고액5천5백2억원가운데2백56억3천여원에 불과했는데 이액수중 이중신고분이 1백74억4천만원, 회사가 터무니없는것이라고 주장한것이 81억8천만원이었다.

이날 회사에 의해 부인된 채권관계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한달이내에 재판부에 채권확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한편 채권자들을 대별해보면 ▲은행및 단자회사 ▲주주 ▲사채업자 ▲일반인 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이가운데 상업은행이 2천여억원으로 가장큰 채권자며 동해생명, 일국증권, 중앙투자신탁등 보험회사와단자회사들도 다액채권자에 끼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몸속密輸」크게 늘었다

稅關 몸수색 완화추세 惡用

해외여행자에 대한 몸수색을 가급적 삼가라는 세관의 감시추세를 악용, 최근보석이나 금괴를 몸에숨겨 들여오는 밀수행위가 부쩍 늘고있다.

金浦세관은 2일 하루동안 금판(金板)을 밀수하려던 일본인 여행사직원 게이끼지·마끼노씨(37·牧野啓吉)와 대량의 산호알을 몸에숨겨입국하려던 중국인여자 顔玶安씨(47)를 관세법위반혐의로입건하고 이들이 밀수하려던 금판·산호등 싯가 2천여만원어치의 밀수품을 압수했다.

세관에의하면 게이끼지·마끼노씨는 이날 東京에서 NWA편을 타고 서울에 오면서 여자용거들을 입고 그속에 금판19개 (싯가 1천8백만원)를 숨겼는데 금협탐지기를 통과할때 소리가나자 자로 신체장에 쇠소리가난다』는등 횡설수설하다 세관원의 몸수색으로 밀수입이적발됐다.

또중국인 顔씨는 이날하오 3시50분 KAL703편으로 金浦에 입국하면서 산호알 2백65개 (싯가 2백만원)를 콜세트속에 숨겨들여오다 거동을 수상히 여긴 세관원에 의해 적발됐다.

또 2일 미국인학생 랠프군(19)도 몸속에 안경테 20개를 숨겨들여오다 적발되는등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같이 몸속에 숨겨들여오는 밀수품은 과거 다이어먼드등 보석위주에서 최근에는 안경테·금괴·웅담·시계와 홍콩산 자수보 (이불천) 등으로 패턴이 바뀌고있다.

공항을 통한 밀수는 81년 1백17건에 15억원 상당이었으나 82년엔 1백40건에 45억8천만원으로 건수에 비해 액수는 무려 30배나 늘었다.

金浦공항등에서 몸수색이 사라진것은 지난80년 신청사가 생기면서부터인데 세관원들도 적발이 안될뿐이지 몸속에 숨겨오는 밀수품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밀수수법이 늘자 미국에서 포킷용금속탐지기 1백대를 구입, 각 세관에서 사용케 하고있지만 사람이 많을때 효과가 적고 밀수품이 금속성이 아닐때는 반응이없는 단점때문에 밀수적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있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H245-3539

延大가정大學 男子지원허용

지금까지 남자의 지원이금지돼있던 延世大가정대학에 남자도 지원할수 있게됐다.

延世大는 3일 83학년도입시요강을 확정, 발표했는데 내년부터 그동안 남학생에게 지원이 허용되지않던 가정대학에 남학생의 지원을 허용하기로했다.

延世大는 지난 81학년도부터 간호대학에도 남학생의입학을 허가해왔는데 81년에2명, 82년에 한명의 남학생이 입학했다.

朝鮮호텔 546억에 팔려

어제 三星계열 中央開發에

朝鮮호텔(사진)이 3일하오 三星그룹계열인 新世界백화점과 中央개발에 팔렸다.

5백46억5천만원에 매매된 朝鮮호텔은 주식60%와 호텔부지 3천1백37평및 半島朝鮮아케이드부지 3천9백18평이 포함돼있는데 호텔구내 八角亭에있는 문화재부지 1천70평은 제외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산하관광호텔을 모두 매각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9월27일 朝鮮호텔을 공개입찰에 붙였는데 그동안 금액이 너무 거액이고 八角亭을 포함한 인근부지의 문화재지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응찰자가 없었다. 이번 공개경매에는 三星그룹외에 롯데그룹이 참가했었다.

水道栓검침 자진申告制로

裡里, 전국서 처음

【裡里】裡里市는 신뢰받는 행정구현 예산절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도전검침 자진신고제를 실시하기로했다.

3일 시에따르면 1차로내년1월부터 시내 昌仁·中央洞등 중심가 5개동을선정, 매월 각가구별로 자진검침을 실시한후 전화 또는우편으로 시에 통보토록해 재인고유카드에 사용량을 기입하고 이를근거로 수도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자진신고제를 내년6월말까지 시용기간을 거쳐 시민들의 호응도와 효과를분석 결과가좋으면 하반기부터는 시내16개동전역에 확대실시하기로했다.

시관계자는 이제도의 운용은 관민간의 신뢰도를높이고 검침원의식을 정착시켜 참여하는 행정으로 이끌기위한 것이며 절약되는 연2천만원의 예산은 상수도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鄭】

설악산入山 전면禁止

11월 한달간 觀光코스만 제외

【東草】설악산의 입산이 1일부터 전면통제됐다.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건조기의 산불예방과 자연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1개월간입산통제기간으로설정하고 등산과 무단입산등을 제에들어갔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이기간에 설악동주변 비선대·울산암 비룡폭포 권금성등 4개 관광코스와 오색리 장수대 백담사등 관광지 주변의 관광은 허용한다.

앞으로 설악산은 적설기가 시작되는 12월까지는 일체의 등산이 통제되는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눈이 내리지않을경우 통제기간이 연장될것이라고 밝혔다.【鄭】

사람잡은 골목野球

國校生포수, 방망이에 맞아 重態

2일 하오5시께 서울江東區岩寺洞 岩寺아파트 42동앞 공터에서 야구놀이를하던 李東信씨의 장남 노식군(11·江東국교 4학년)이 盧모군(18·노동·江東區梧琴洞)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맞아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다.

사고는 이날 아파트에서 방수공사를 해주고 귀가하던 盧군이 야구놀이 현장을 지나다 한번만 쳐보자고 부탁, 놀이에 끼어들었다가 투수가 던진 높은 공을 포수인 노식군이 일어나 받으려는 순간 방망이를 휘둘러 일어났다.

株總 議事錄위조

10억짜리땅 詐取

【釜山】부산시경은 2일 주주총회 의사록등을위조해 싯가10억원상당의 남의 회사땅을 가로챈 부산시 東萊區巨堤洞 송금주식회사 이사 金炳龜씨(61·釜山市東萊區 社稷洞 社稷아파트1동 305호)를 사문서위조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80년7월 극동선대 대표이사 신현구씨(35·釜山市南區大淵洞43)의 재산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신씨의 인감및 회사직인을 도용, 신씨명의로 조양양행(釜山市東萊區巨堤洞17) 임시주주총회및 이사회, 이사록등을위조해 자신이 조양양행 대표이사인것처럼 속여 부산지법으로부터 회사대표자 명의변경 등기까지 마쳤다. 지난80년12월29일에는 신씨소유인 釜山市東萊區 巨堤洞17소재 대지 1천8백38평(싯가7억원)을 신씨몰래 부동산양도계약서를 작성,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마친뒤회사와부동산을10억원에다른사람에게팔아넘기려했다는것이다.【鄭】

어부 수색작업답보

제1동해號 실종

【東草】제1동해호(92톤)실종어부수색작업은 1주의 시체만 찾은채 벽에 부딪쳐있다.

동해어로보호본부는지난달 24일 울릉도동북쪽 60마일해역에서 제1동해호가 격랑으로 침몰되자 즉각 실종어부 31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펴왔으나 사고10일이 경과한 3일까지 계속된 수색에서 어부 金순우씨(34·釜山南區龍湖洞)의 시체1구를 찾아 인양하고 LP가스통2개 경유드럼통2개 플래스틱상자 12개 스티로폴 부유물1점등을 찾아냈을뿐 다른 실종어부는 찾지 못했다.【鄭】

亂行당했다고 誣告

教授협박 女人영장

【釜山】부산海雲臺경찰서는 3일 간이술집 여주인 金道子씨(44·여·海雲臺區中1洞 1393)를 무고및 공갈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金씨의 내연의 남편 柳成激씨(47)와 姜順五씨(56·東萊區巨堤2洞1241)등 2명을 공갈미수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해9월8일 새벽4시께 자기집 단골손님인 부산모 공전교수 吳모씨(38)가 술에취하자 인근 海雲臺區佑1洞5 44 초원여인숙에 안내해준 것을 미끼로 吳교수로부터 욕을당했다고 경찰에 허위고소했다는것.

金씨는 그후 내연의 남편 柳씨및 姜씨와 짜고 같은해 9월10일 하오5시께 吳교수를 中區南浦洞 금성여관으로 불러내『교수가 유부녀에게 욕을보였으니 교부장관에게 진정, 파면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면서 고소 취하조로 1억원을 요구한끝에 吳교수로부터 2천만원을 준다는 각서를 받아냈다.【鄭】

53년만에 명예졸업장수여

학생의날, 光州一高동문 18명에

【光州】3일 제53회 학생의날을맞아 光州일고는 일제에 항거하다가 강제 퇴교당한 18명의 동문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이날상오9시 光州일고 소강당에서 열린 명예졸업장수여식에는 光州西中·일고동창 1백여명을비롯, 가족과 재학생등 4백여명이 참석, 선배들의 명예로운 졸업을축하했다.

이날 졸업장을 받은 사람가운데 徐炳允(7회)·鄭東華씨(9회)형제를 비롯, 鄭洙씨등 2명은 이미 고인이돼 가족들이 졸업장을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光州일고 李大老교장은『위는 光州학생독립운동으로 인해 光州고보재학중 희생되었기 그얼을 높이 찬양하여 명예졸업장을 수여한다』고 말하고 한사람 한사람에게 수여할때 장내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鄭】

畵廊에 도둑

南農그림등 훔쳐

2일새벽 서울鍾路區寬勳洞73의1 古村화랑(주인 文今用·45)에 지붕을타고 뒷문으로 도둑이들어 싯가1백80만원짜리 南農 許楗화백의「夏景山水圖」1점과 雲園 申鉉璪화백의 동양화2점등 모두 2백30여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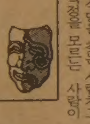
주인 文씨에의하면 전날밤 9시께 문을잠근후 퇴근하고 2일상오9시10분께 화랑에 출근해보니 안으로 잠겼던 문고리 3개가 뽑혀떨어져있고 벽에 걸어두었던 그림이 면도칼로 오려져 없어졌다는 것.

경찰은 화랑내부사정을 잘 아는 전과자소행으로 보고있다.

욕장이

清州 중앙여관주인 金有禮할머니

"청상과부되어 誘惑 겪다보니…"



清州市 南門路2街 中央여관골목은「욕장이」골목으로 더 잘알려져있다. 여관주인 金有禮씨(73·사진) 때문에 괴상한 이름이붙었다.

초면이라도 패기가없으면「숫처녀」지못하다』고 흥분지고 좀 건방지게굴면「뭐한은 X이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느냐」고 푸짐한 욕을 해댄다.

그러나 金씨에게 욕을 먹고 반발하거나 기분나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없다. 金씨가 경영하는 여관이나 장안식당을 찾는 사람치고 金씨의 인생역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

金씨의 고향은 충북 鎭川 산골마을. 유복녀로 태어나 14살때 오빠의 노름빚에 팔려 13살 연상총각에게 시집갔다. 자녀를 3명이나 낳았으나 원인모를 병에 남편과 자녀를 모두 잃고 29살에 청상과부가 됐다.

할수없이 식모살이로 전전하다 모은 20만환으로 淸州 무심천둑에 천막을 치고 장국밥 장사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청상과부라고 집적거리는 남자의 기를 죽이기위해 욕을 해댔다.

그러나 장국밥맛만은 뛰어나 장국밥과 욕은 인심좋은 淸州명물이 됐다.

淸州명물이 됨에 따라 장사가 잘돼 장국밥집터와 뒤에있던건물을 사들였다. 6·25가 끝나던해 당시 淸州에서 제일가는 건평 1백60평정도의 中央여관을 신축했고 최초로 장국밥을 팔던 장소엔 장안식당이란 2층건물을 세웠다.

욕장이 할머니의 단골이나 知己가 된 저명인사도 적지않다. 욕이인연이돼 체신부장관과 淸州에서 국회의원까지지낸 郭義榮씨, 趙健相 전忠大학장, 문인 鄭飛石씨도 단골이나 가까이 지냈다.

욕장이 할머니는 78년 평생모은 현금과 여관등을 처분, 1억2천여만원을 충북대에 장학금으로 내놓아 金有禮장학회를 설립했다. 장안식당도 할머니가 죽으면 충북대장학기금으로 이전수속이 되어있다. 충북대는 충대교정에 할머니유택을 마련해놓았고 할머니 장례도 학교장으로 치룰예정.

정부와 각 사회단체도 국민훈장 동백장과 수많은 표창장및 감사패로 할머니의 높은뜻을 기렸다.

『인간이 곳대없이 흔들릴 때는 욕을 먹어도 싸지요 싸』할머니는 역시 거침이 없다.【淸州=宋大洙기자】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韓電、17년만에 決勝에

승부킥으로 第一銀격파
서울市와 오늘覇權다툼

제37회 전국축구선수권

◇韓國電力과 第一銀行의 격전。韓電FW 崔明烈⑨가 돌진하는순간 第一銀수비가 태클을걸어 저지하고 있다。

韓國電力이 결승전에 진출했다。韓電은 3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제37회 전국축구선수권대회 11일째 준결승전서 第一銀行을 맞아 연장전을 포함한 1백20분간의 격전끝에 2—2로비긴후 승부킥에서 5—3으로 승리、대회출전 17년만에 처음 결승전에 올랐다。

韓電은 전반21분 미드·필드입구서 南性數이 프리킥하자 골·에리어 정면서 李龍煥가 볼을 헤딩·패스、이를 받고 전반42분 金鎭世의 헤딩골로 1점을 추가、2—0으로 앞섰다。

그러나 第一銀行도 만만치 않았다。第一銀은 후반들자 맹공격을 펴기시작、9분 文敏鎬가 1점을만회하고 24분 李東浩가 동점골을넣어 2—2 타이를 이루가운데 후반전을 마쳤다。

韓電은 연장전 30분경기서도 3차례의 득점기회를 살리지못하다가 승부킥에서 5명이모두 킥을 성공시켜 힘겹게 승리했다。第一銀은 3번 키커 具本錫이 실축、분패하고 말았다。

서울市廳은 연장전끝에 延世大와 3—3으로비긴후 승부킥에서 4—3으로이겼다。

◇제11일전적

▲준결승전

한전 2 (2—0, 0—2, 연0—0) 2 제일은행 <승부킥5—3>

서울시청 3 (1—1, 1—1, 연1—1) 3 연세대학 <승부킥4—3>

吳錫載·崔鍾德 할렐루야 入團

프로축구팀 할렐루야는 3일 吳錫載、崔鍾德、朴商寅、金昌福등 4명을 보강、홍콩의 블로바팀을 초청、18일과 21일 大邱와 서울에서 두차례경기를 갖는다。

할렐루야는 또 12월초 현 국가대표선수인 朴成華、李炳鎬등 4명을 보강한뒤 현 주장인 黃在萬을 트레이너로 임명할 계획이다。

홍콩 블로바팀은 지난해 바이스로이컵、홍콩FA컵에서 우승했고 1부리그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尹美淑·申貞順 대회 신기록

전국양궁선수권 女60m더블라운드

3일 연세대운동장에서 속개된 제14회 전국남녀양궁종합선수권대회 3일째 여자 60m더블라운드서 尹美淑(서울시청)과 申貞順(광주여고)이 각각 649점의 대회신기록을세우면서 1、2위를 차지했다。

전날 여자 30m 싱글서 비공인 세계신을 세웠던 申은 이날 25개를 때린 尹에 10점짜리 과녁인골드를 26개맞춰서 2위를 차지했다。한편 남자 90m더블라운드서는 朴彩舜(전남체고)이 566점을 기록、申東己(신라섬유)를 18점차로누르고우승했다。남자70m더블라운드서는 林寅澤(전남대)이 632점을 올려 田仁秀(부천고)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제3일기록

▲남자90m더블=①朴彩舜(전남체고)566②申東己(신라섬유)548③金德容(신라섬유)546▲동70m더블=①林寅澤(전남대)632②田仁秀(부천고)617③金洪福(한체대)614▲여자70m더블=①宋京希(경남대)609②尹美淑(서울시청)600③徐香淑(광주여고)599▲동60m더블=①尹美淑(서울시청)649(골드수26)②申貞順(광주여고)649(골드수25)(이상대회신·종전646)③徐炫珠(대전시청)645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58>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안개속의 집 ㉕

『시골에서 살았을지도 모른다구요? 꼭 남의 말하듯하네요。』

그가 보기좋을수록 수지는 철딱서니 없이 명랑하게 굴었다。

『시골에서 낳았지만 연자방아를 본 생각은 안나는 걸요』

『나도 못봤어요。나야말로 골수 서울뜨기니까요。』

『이제 연자방아 같다면서요? 그럼, 보지도 못한 거하고 비교를 하셨나요?』

『그림책에서 봤는데 소가 돌리더군요。힘 든 거하고 도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이것도 소를 이용해서 돌리면 훨씬 쉬울텐데…』

『사모님도 사람 좋을 너무 무시하네요。소가 어떻게 요령껏 한결같이 도수를 맞춰 돌수가 있겠어요?』

유기사가 슬픈 얼굴을하며 똑같은 규격의 U자모양으로 구부러진 파이프들을 가리켰다。

『미안해요。화 났어요? 차드실래요?』

그녀가 『천주자마자 금새 입술이 벌어지고 뻐드렁니가 드러나는 유기사를 보면서 수지는 그 큰 사내를 손바닥 위에 놓고 공기돌처럼 놀리는 짜릿짜릿한 즐거움을 맛보았다。

『코피 마시면 잠이 안 와서요。안먹던거라…』

그가 뒤통수를 긁으며 엉거주춤했다。

『어머, 그래요? 오늘일 그렇게 힘든일을 하고도 잠이 안와요?』

그 우람하고 단순한 사내의 불면의 밤을 생각하는 것도 수지에겐 야릇한 즐거움이었다。하루 두번 세번씩 코피를 마시게한건 사실이지만 간사스럽도록 작은 잔에 반쯤탄 코피는 그의 입안을 축일 정도의 분량밖에 안됐다。그의 불면이 그까짓 코피때문이었을까?

그녀는 그의 불면조차 손바닥 위에서 갖고 놀려 들었다。

처음날 당당하기 보다는 겁없이 때묻은 옷과 그가 신분에 신경 쓰지 않고 화려하고 정갈한 응접세트에 편안히 기대 앉던 그가 친숙하게 대해줄수록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어쩔줄을 몰라 하는 것도 재미있었다。이젠 제법 응접실에 들어 오는 일을 사양까지 했다。그럴수록 수지는 굳이 그를 응접실에 앉혀 놓고 그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즐기려 들었다。

『유기사、편히 앉아요。꼭 벌 받는 사람처럼 굴지말고…』

『아、네…』

그가 수지를 바로 보지못하고 불안하게 창밖의 동정을 살폈다。

『걱정 말아요。유기사 차례할때 꼭 일꾼들한테도 대접하나?』

『도급으로 맡기시고도 새참을 너무 잘 해주시는것도 황송한데 번번이 저한테 이렇게 따로 신경 쓰실 거 없다니까요。』

실은 유기사에게 코피는 큰 골칫거리였다。입속이나 축일까말까한 쓴 코피때문에 막걸리에 제육 아니면 떡이나 빵으로 푸짐하게 나오는 새참에서 저절로 제외되기 때문이다。일꾼들은 일꾼들대로 새참 때마다 따로 응접실로 불려 들어가는 유기사를 특별한 대우라도 받고 나오는것처럼 시샘하고 수군댔으니 더 난처했다。

프로野球 정비한창

감독·코치교체、준비훈련 들어가

83년시즌을 앞두고 프로야구구단들의 팀정비가 한창이다。해태·타이거즈는 3일 金應龍신임감독의 취임식을 가졌으며 趙昌秀 柳南鎬코치외에 1～2명의코치를보강、8일부터 光州에서 동계강훈에앞서 준비훈련에들어간다。

三星·라이온즈는 재일동포 李忠男씨를 조감독으로 기용한데 이어서 투수코치를 林信根씨에서 前韓國化粧品 및 서울高감독 金昊中씨로교체、12일부터 大邱에서 훈련에 돌입한다。

롯데·자이언츠는 朴永吉감독을 유입시키는한편、국가대표팀 코치였으며 東京大감독인 姜秉徹씨를 타격및 작전코치로 발탁、코칭·스태프를 정비키로 했다。

三美·슈퍼스타즈는 金振榮신임감독의 복안에 따라 코칭·스태프와 선수보강을추진하고있으며 MBC·靑龍은 白仁天감독이 유임되었으나 코치진을 개편할 움직임이다。

우승팀 OB·베어스만은 코칭·스태프에변화없이 82년 시즌의 마무리 훈련에 들어갔다。

한편 롯데는 병역문제로해외진출의 길이 막힌 崔東原의 스카웃에 7천만～1억원선으로 이견을 좁히고있으며 三星은 훈련개시전에 金始眞、張孝祚와의 계약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禹京夏·張孝祚홈런
日시노오팀 물리쳐
한국실업야구

한국실업야구대표팀은 3일 日本의 시노오製鋼구장서 벌어진 원정1차전에서 1회초 禹京夏의 선제결승3점홈런과 6회초 張孝祚의솔로홈런으로 승세를굳히고 金始眞 任旅均의 역투로 시노오를 1실점으로 막아 4—1로 승리했다。

◇제1차전

한 국	300	001	000	4
일 본	000	000	010	1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延大、2陣기용 漢大제압

弘益大도 檀大눌러 창단후 첫勝利

19회 추계大學농구연맹전

제19회 추계대학 농구연맹전 3일째 경기가3일 장충체육관서 속행、延世大가 漢陽大를물리치고3승으로A조 선두에나섰다。이날 延大는 金賢俊의 중거리슛과 高明和 兪在學의 활약으로 漢陽大를 98—77로대파했다。延大는후반 2진을 기용하는 여유를 보였다。

中央大는 리바운드서 우세를지키고 朴慶洙의 중거리슛 호조로 成均館大를 80—65로 제압、2승1패를마크했다。

B조서 弘益大는 檀國大에 68—66으로승리、금년 창단이후 첫승리의 감격을맛보았다。東國大는 慶熙大에 58—57로 극적인 역전승을거두고 3연승을기록、결승리그진출이 확정되었다。

◇제3일 전적

▲A조

중앙대학 80 (43—41, 37—24) 65 성균관대 (2승1패)(1승2패)

연세대학 98 (48—40, 50—37) 77 한양대학 (3승)(2승1패)

▲B조

홍익대학 68 (35—28, 33—38) 66 단국대학 (1승1패)(3패)

동국대학 58 (28—25, 30—32) 57 경희대학 (3승)(2승1패)

南阿共 고립화무시 美英、스포츠交流

【유엔본부PTI=聯】美國과 英國은 금년상반기중 인종차별국인 南阿共和國과 가장 많은 스포츠교류를 가져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취해지고 있는 국제적 對南阿共 고립화움직임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유엔 인종차별반대 특별위원회가 2일 보고했다。

特委는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금년상반기중 南阿共이 참가한 국제경기가 모두 1백58건이었다고 전하고 이중 英·美가 참가한 경기가 가장 많았다고 강조했다。

11일 壯途에 올라
아시안게임 선수단 결단
주장에 배구姜萬守

제9회 아시안게임(11월9～12월4일·印度뉴델리)에 출전하는 한국대표선수단 결단식이 9일상오10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서 거행된다。한국선수단은 11일 KAL 전세기편으로 장도에오른다。

대한체육회는 제9회 아시안게임 출전 한국선수단주장선수에 姜萬守(남자배구)、기수에 方烈감독(남자농구)을 각각 선정했다。

日、아시안게임에 4백63명파견

【東京AP=聯】日本은 19일 印度 뉴델리에서개막되는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에 사상 최대규모인 4백63명의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日本올림픽위원회(JOC)가 2일 발표했다。

JOC는 2백54명의 남자선수와 1백1명의 여자선수 1백8명의 임원및 관계자들을 오는 14일 뉴델리에 파견한다고밝혔는데 日本은 21개 전종목에걸쳐 총70개의 金메달획득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번에 파견되는 日本대표단은 지난64년에 개최된 도오쿄(東京)올림픽때의 4백10명을 능가하는 사상최대규모이다。

후꾸야마·노부요시日本대표단장은 한국과 中共、北韓등이 日本의 우승에 가장큰 위협이 되고있으나 전반적인 메달경쟁에서 日本이 首位를 차지할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日本은 이번 아시아경기대회 출전비용으로 총1억9천5백만엔(71만1천달러)을 배정했다。

印度아시안게임 카운트다운 ④

배구

메달획득 확실하나 金은 어려울듯

選手정신무장에 力點
힘과 높이 대비한 훈련도
中共·日本에 설욕기대

배구는 메달획득이 확실한종목。그러나 金메달은 어려운 과제다。지난 10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10회 세계남자배구 선수권대회는 아시안게임 전초전。한국 남자배구는 세계 선수권서 中共과 日本에각각 3—0으로 완패했다。이 결과만을 놓고볼때 中共과 日本을 제치기 힘들것이라는 평가가 나올수 있지만 반드시 절망적인 것만은아니다。부상과 질병으로 대표팀에서 물러났던 [illegible]와 文湧冠이 다시 코트에 복귀했다。

또한 세계 선수권때까지만해도 연습이 부족했던 姜萬守가 다시 예전기량을되찾아가고 있다。이번 아시안게임서 남자배구는 中共과日本에 설욕전을 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있다。

대표팀 李圭昭감독은 최대적수로 中共을꼽고있다。

中共은 세계선수권서 4위의 日本보다 3순위가떨어진 7위를 차지했지만 평균신장·평균연령·경기운영등에서 日本보다 앞선다。

특히 中共은 보통A퀵보다 더빠른 속공을 펼치고있으며 흐르는 토스를받아스파이크하는 이동공격 역시 상당한수준에올라있다。

李감독은 中共의 공격을 분쇄하기위해 맨투맨 블로킹에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日本은 후루가와대신 게나찌·시미즈를 세터로 기용,생소한 공격패턴을보여주었다。시미즈를 축으로한 시간차공격·상대블로킹을 무력하게하는 밀어치기 타법등으로지난번세계선수권서 위력을 떨쳤다。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고 있다。

여자배구의 경우 中共·日本의 벽외에 북한이라는 또다른 장벽이 있다。북한은 180㎝이상의 장신선수를 4명가량 보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과의 경기는 실력외에 정신적인 요소가 작용하므로 田好寬감독은 선수들의 정신무장강화에 최대역점을 두고있다。

현재 中共과 日本의 전력은 분명히 한국보다 한수위。中共은 지난해 월드컵 우승、올해9월 페루에서 열린 제9회 세계여자배구선수권을 제패하는등 세계최강의 팀이다。中共을 꺾는 것은 힘든 과제이며 日本을 꺾는다면 은메달은 가능하다。지난 세계선수권서 日本에 첫세트를 0—15로 내주었던 여자배구도 이번 아시안게임을 설욕전으로 잡고 있다。田好寬감독은 세계선수권대회 귀국보고회에서 『어떻게 하든 日本만은 꺾겠다』고 확고한 결의를 보였다。

여자배구는 실전에 대비한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국내 고교팀과의 게임을 통해 힘과 높이에 대비한 훈련을 쌓고 있다。

◇姜萬守를 비롯한 배구남자대표선수들이 태릉선수촌서 마무리연습에 열중하고있다。【權周勳기자】

◇역대아시안게임성적 <4회까지는 6·9인제병용>

개최지및년도	남자	여자
3회58년일본	①일본②한국③대만 (9인제)	
4회62년 인도네시아	①일본②이란③인도 / ①일본②한국③필리핀 (9인제)	①일본②한국③인도네시아 (9인제)
	①일본②인도⑤한국	①일본②한국③인도네시아
5회66년태국	①일본②한국③이란	①일본②한국③이란
6회70년태국	①일본②한국③대만	①일본②한국③코메르
7회74년이란	①일본②한국③중공	①일본②한국③중공
8회78년태국	①한국②일본③중공	①일본②중공③한국

【金仁奎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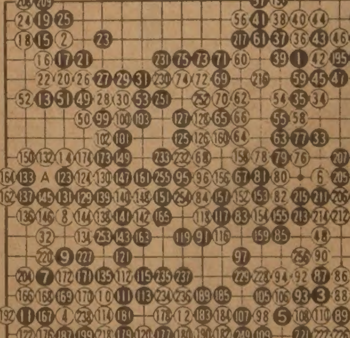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盧泳夏<1敗>

黑(6段) 張秀英<1勝>

張6단 통렬한勝利



盧7단의 전투력은 일찍부터 이름이 나있지만 이바둑에서 보여준 張6단의 완력은 결코 그만 못지않았다。아니 오히려 그 작전규모가 크고 대담하기로는 盧7단을 앞지른 느낌마저 든다。

여하간 힘과 힘이 맞붙은 이바둑은 시종일관 보는이의 손에 땀을쥐게하며 근자에 보기드문 열전이 계속되었다。

또 그만큼 쌍방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언제나 그렇듯 국후검토때는 패한쪽의 그것이 더많이 지적되었다。

이제 盧7단의 자취를 훑어보면 우선 우상귀에 침입한 白36이하가 조급하여 46까지 黑의외세만 더해준 결과였다。그러나 白54이하 黑75까지 상변 黑家를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둘만한 바둑으로 만든것은 역시 노련한 솜씨였다。

한데 이뒤 白76이하 80이 공연한 긁어부스럼。이로인하여 국세가 급박해졌다。86쪽도 급한데다 중앙白대마도 불안해서 고전이 예상되었다。

黑은 이러한 白의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99。101。또 105、107。그리고 111등 강경한 승부수를 연발하여 중반전이후는 그야말로 가공할 공격의 연속이었다。

白은 130을「A」로 젖히지 않은탓에 黑131을 허락하고 대세가 기울어지더니 뒤는 黑의 페이스에 말려 끝까지 만회치 못했다。

104…99。175…169。188…172。191…169。193…167。194…172。197…169。198…11。200…172。201…43。203…169。210…172。257…42。【一凡】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제5회 사격 협회 창설기념

선수권대회

본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5회 창설기념 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1월13일(토) 오전11시(우천불문)

장 소 : TORONTO SPORT MEN'S ASSOC. (구 토론토·건클럽)(약도참조)

참 가 비 : AA, A, B, C조(각35불) 단체팀(3명1조, 35불)

※위 참가비에는 실탄비와 디너값 포함.

시 상 : 챔피언 1 명

AA, A, B, C, 주니어, 시니어(노인상)

각각 1.2.3등 단체상, 장려상

사격종목 : TRAP(표적 날려 맞추기)

⊙두 종목에서 5명이 한조로 단발사격도 있음.

고정사격 내기로 상품을 탈수있음(터키 SHOT)

기 타 : ○올해 처음으로 특별히 노인대항이 있겠사오니 많은 어른께서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하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당일 총이 없으신 분은 본 협회에서 무료 제공 함.

연 락 처 : 791—0081(MR. 한) 755—7635(MR. 배)

주최 : 캐나다사격협회

후원 : 재캐나다체육회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한국일보 (특집판)

아라비아半島 걸프地域을 가다

동트는 中東의 奧地

페르시아灣 小國과 오만國의 오늘

李在武기자 현지르포

무진장한 석유 매장량과 함께 막대한 建設需要를 안고 있는 아라비아반도는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에 큰몫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등을 제외한 아라비아반도의 다른 小國들은 우리경제의 성장에서 차지해온 역할에비해 비교적 알려져있지 않고 있는게 사실이다. 오만 정부 초청으로 아라비아반도의 小國인 오만國을 돌아보고온 본사 政治部 李在武기자의 현지르포를 통해 오만國을 비롯한 아라비아반도小國들이 차지하고있는 오늘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편집자註】

오만을비롯한페르시아灣연안의 君主國들은 아라비아반도의盟主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잡고 걸프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사우디 오만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등 6개 아랍産油國정상들은 걸프지역의 번영을 위해 지난해5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모임을 갖고 이지역협력기구인 걸프협력이사회 (GCC) 를 구성했다.

GCC구성의 선도적인 역할을한나라는 북쪽에 호르무즈해협을끼고 남쪽에 소련의 지원을받는 사우드예멘과 대치하고있는 오만으로 오만은 이를위해 76년 수도무스카트에서 걸프외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들국가들은 모두 反蘇親서방정책을 펴고있어 우리나라와는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있지만 북한과는 접촉을 삼가고있으며 다만 쿠웨이트만이 북한의 통상대표부설치를 허용하고있다.

사우디를 제외한 5개국은 모두 인구1백만명내외의 小國들이지만 석유수입으로 개인소득은 바레인 (6천달러)를 제외하고 1만달러이상의 富를 누리고있으며 우리나라 건설의 中東진출터전이 되고있다.

페르시아灣연안의6개국 가운데 오만은 우리나라에 비교적 알려지지않은 小國이지만 이나라가 처해있는 地政學的 위치로보아 列強들의 상당한 관심을모으고 있다.

오만은 건설부문이나 軍현대화작업에도 오만나이제이션(오만化)을 강조,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오만人의 기술훈련을 권유하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이나 훈련이 요구되는 군장비의 관리에도 오만人을 참여시키고 있다.

정부의 한고위관리는『우리는 과거 수천년간 석유없이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석유없이 살아갈수있도록 국민들의 기술습득과 농업개발에 주력할각오」라고 먼 앞날을 내다봤다.

오만은 16세기에 포르투갈의지배를받았으나 17세기에 포르투갈人을 추방한후 해군함대를 재건, 잔지바르 모가디슈몸바사등 아프리카동부와 아라비아반도를 정복하는한편 페르시아연안에 교역식민지를 세우고 통치권이 자크란(現파키스탄및 아시아대륙)에 뻗치는등 막강한大國의 역사를갖고있으며 현재도 동부아프리카 케냐에는 오만村이 남아있다고한다.

오만인들은 알라神의 손길로 오만이 제2의부흥기에 들어섰다고 믿고있다.

사실 궁정쿠데타로 王朝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기 이전까지의 오만은 역사의 뒷전에 잠자고 있던 文明의 奧地라 할수 있었다.

前王 타이무르는 변협한 고립주의자로 38년간 이나라를 지배하는 동안 그의 기사가 실린 외국신문 전구 우산등의 수입은 물론 길거리에서의 흡연이나 가무 선글라스착용등을 금지시켰으며 이를 위반하는자는 내외국인을 가리지않고 처벌했다고 한다.

무스림에게 술은 금기지만 담배는 허용이 되는데도 고루한前王의 명분없는 억압정책에 싫증을 느낀 오만人들은 70년 카부스왕세자가 궁정쿠데타로 즉위하자 이를 크게 환영했다.

영국 샌드허스트 陸士출신으로 현대교육을 받은 젊은 국왕은 18세기의 오만을 20세기의 현대사회로 개혁작업을 서둘렀다. 70년까지 오만에서 찾아볼수 있었던 현대적 요소라곤 무스카트에있는 3개의 국민학교와 2개의 병원 그리고 10㎞정도의 포장도로가 고작이었으며 전기시설은 일부 특수층에서만 혜택을 누릴수 있었다.

카부스왕은 高價의 원유수출로 벌어들인 오일달러를 교육 후생 주택도로 항만건설등 산업시설과 사회복지사업에 적극투자,현재 초중등 학교수는 4백개에 12만명의 男女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농업대학설치를 계획중이다. 또 병원과 보건소도 산악지대에 까지 보급됐고 포장도로가 1천㎞, 개량도로가 5천5백㎞로 도로망도 크게 개선됐다.

인구 5만명의 수도 무스카트지역에는 수영장과 테니스코트를 갖춘 현대식 호텔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주택붐이 한창이라 70년대 초반 서울의 江南지구를 연상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

국왕과 국민들의 한결같은 노력으로 70년대까지 日産20만 배럴에 불과했던 산유량도 수년전 남부와 중서부지방에 새로운油田이 발견되면서 현재는하루 33만배럴을 채굴하고있다. 그만큼오만이페르시아灣에서 차지하고 있는비중이 점차 커지고있다고할 수있다.

오만國이외의페르시아灣 小國들도 나라는작지만 그 나라가 위치하고있는 특수성으로 무시할수없는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도서국인 바레인은 서울보다 약간큰 6백70평방㎞의 면적에 인구는 30만명에 불과한 小國이지만 中東의 관문으로서, 그리고 금융 교통 통신의 센터역할을 하고있다. 現代건설이 이곳에 대규모조선수리소를 건설,우리나라의 기술이 처음으로 中東지역 국가들에 인정을 받게된곳이기도하며 현재 KOTRA 外換銀行지사 現代 京南등 8개회사가 진출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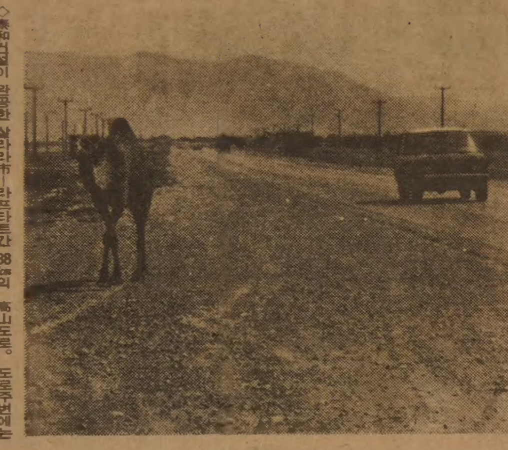
페르시아灣西岸의카타르는 1만평방㎞의 면적에 인구는 바레인 보다 더적은 25만명에 불과한 土侯國으로 우리나라와는 74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태권도 사범등 1천6백여명의 교민이 체류하고있다.

7개토후국들이 연합한 아랍에미리트는 수도 아부다비에 우리대사관이 설치돼있고 상업중심지인 국제무역항 두바이에 KOTRA와 大宇三星등 6개 종합상사가 진출,中東지역에 진출한 우리근로자들에겐 보급기지로,아랍人들에겐 우리상품의 중개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섬유 고무 철강 전자제품등 1억8천만달러어치를 수출했으며 삼환기업등이 수출독려차 아부다비에서 1일에 한번씩 두바이에 들러 우리商社대표들에게 수출정보를 브리핑해주고있다.

"석유로얻은 富 영원히 지키자"

全國土 개발붐…沙漠이 沃土로



◇泰和건설이 완공한 살라라市-라프타트간 38㎞의 高山도로。도로주변에는 낙타、얼룩말、소、염소등이 방목되어 외국인의 관광코스로도 이용된다。

오만國

44년 英서 독립한 회교君主國

人口 百萬에 80%가 농업종사

아라비아반도 東南端의 회교君主國. 44년 영국의 보호령에서 독립한 産油國으로 면적은 한반도의 약1·5배인 30만평방㎞이나 인구는 1백만명에 불과하다.

헌법과 정당이없는 절대王政으로 인구분포는 농업이 80%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지만 강우량(年1백~3백㎜)이 적은 사막성기후인데다가 국토대부분이 사막과 거친자갈평원으로 경지면적이 전국토의 0·13%에 지나지않아 국가경제는 67년부터 본격적으로생산된 原油수출에 의존하고있다.

前君主였던 사이드·빈·타이무르가 집권할 당시의 국명은 무스카트·오만이었으나 70년 궁정쿠데타로 왕세자 카부스·빈·사이드가 즉위하면서 오만으로개칭했다.

카부스국왕은 父王의 쇄국정책을 버리고 인근아랍제국과의 유대강화에 노력, 71년 아랍연맹및 유엔에 가입하는 문호개방정책을 폈다.

영토는 오만灣과 인도양에 연한 본토외에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두고 북쪽에 무산담반도로 나뉘어져있는데 무산담은 세계석유의 50%가 통과하는 호르무츠해협을 내려다보는 자유진영의 전략요충으로 이용되고있다.

카부스국왕은 사우드예멘과 접경지대인 남부 도파르지역에서 사우드예멘의 지원을받은 게릴라들을 75년 완전평정했으며 이로인해 사우드예멘지국과는 적대감정을 갖고 철저한 反蘇親서방정책을 펴고있다. 그의 反共노선에따라 우리나라와는 74년 대사급외교관계를 수립,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우리와의단독외교관계수립이후 북한의 수차에걸친 오만入國기도를 거절하는등 북한과는 외교관계수립을 고려치않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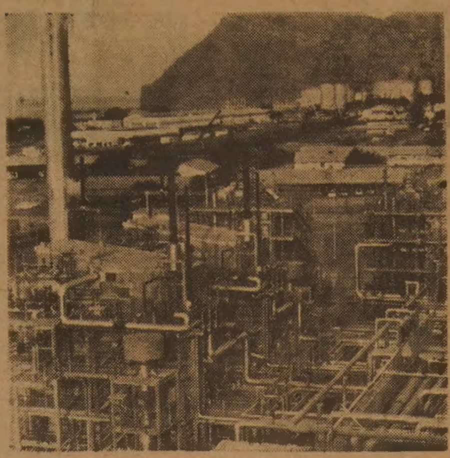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70년대 후반부터 섬유 철강 고무제품 전기기기 차량 시멘트등을수출하고있는데 80년까지는 9백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2천5백만달러어치를수출했으며 오만으로 부터는 78년에 3백만달러, 79년에 4백만달러,80년에 1천9백만달러어치의 原油를수입했지만 작년에는 기름이 남아도는 바람에 수입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민은 내륙山地에는 아랍인이 대부분이나 해안지대에는 페르시아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인등 다양하고 혼혈인도 많지만 이들은 대부분 정부관리나교사직에종사하고 있으며 도시 근로자는노임이 싼 인도와 파키스탄人이 주종을 이루고있다. 1人당 GNP는 6천5백달러이며 수도는 무스카트.

오만進出 한국企業들

精油공장·연안漁業에 2百명

대규모 플랜트工事등가능성



◇수도 무스카트의 파하르港에 現代建設이 시공한 오만최초의 정유공장。최대용량 5만배럴의 이공장에선 하루3만배럴의 原油가 精製된다。

한국인은 오만을 잘모르지만 오만 사람들은 한국을 잘알고있다는것이 현지에있는 우리교민들의 공통된 견해다.

기자가 만난 오만의 정부관리들은 확실히 한국에 대해 여러가지 알고있었다. 그들은 일본을 과학의 나라로, 한국을 기술과 건설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멀지않아 한국의 기술이 일본을 따라잡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이 한국을 알게된것은 現代및 泰和건설과 한국해외어업주식회사가 현지에 진출, 오만의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現代는 오만 최초의 정유공장을 건설, 기술 한국의 이미지를 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공사는 일본의 三井조선이 9천만달러로 하청받아 기자재를 조달해준다는 조건으로 現代에 시공을 의뢰했는데 現代는 80년 11월에 착공, 오는 11월15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수도 무스카트의 파하르港에 연한 작은산을 불도저로 밀어 순식간에 13만5천평방미터 공장부지를 마련, 설계도에 따라 착오없이 공사를 진행시키는것을 본 오만사람들은「현다이」라면 무슨일이든해낼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現代는 공사가 한창일때 6백명의 근로자를 투입시켰다가 완공단계에 접어들면서 인력을 서서히철수시켜 현재는 1백여명의 근로자만 남기고 있다. 沈高潔현장소장 (38)은『우리가 완공한 정유공장의최대생산량은 하루 5만배럴이지만 오만국내소비에 필요한 3만배럴을생산하게 될것』이라면서『오만정부에서는 現代가 주택공사에도 참여해줄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택건설보다는 규모가 크고 기술을 요하는 플랜트공사를 찾고있다』고 말했다.

泰和건설의 경우 남부살라라市외곽의 高山도로공사를 맡아 좋은 이미지를 심었지만 지난8월 공사를 도중포기하고 철수했다.

泰和는 80년2월 살라라市에서 티탈을 거쳐 라프타트에 이르는 자발 3工區 38㎞도로공사를 1천3백만달러에 하청받아 81년 12월에 완공했다. 이와병행해 타카에서 카이론하이리티에 이르는 자발 2工區 65㎞의 산악도로도 2천만달러에 따내 80년10월부터 공사에 착수했다.그러나이 공사는 입찰가격의 덤핑등으로 1천만달러의 빚을지고 工程50%정도에서 손을 들고 말았다. 泰和의 이같은 사고는 해외건설업체의 덤핑受注등이 얼마나 큰피해를 가져오는것인가를 말해주는 교훈이 되고 있다.

이들 건설회사보다 앞서 진출한기업은 한국해외어업주식회사다. 한국해외어업은 78년부터 마시라島와 쿠리아 무리아 群島사이의 연안및 연해 어업권을 획득, 이해역에서 독점조업중이다.

이회사는 1천~1천5백톤 어선 2척에 우리선원90명이 승선, 도미 민어등을잡아 어획량의 30%를 오만정부에 양도하고 나머지 70%는 일본등지로 수출해 재미를 톡톡히 보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許大永지사장은『처음엔 日本회사도 함께 조업을했으나 일본회사가 南예멘어장으로 철수하는바람에 우리가 독점해 착실한 外貨수입을 올리고 있다』면서『국적의 벽」가로 오만실습생 5명에게 현장에서 기술을가르친는외에는매년2명씩을 본국에 연수시켜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만정부에서 발한 책자에도「한국이 연안 어업권을 얻어 조업하고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만에서 한국의 기술이 높이 평가되고있는데는 이들 기업뿐만이아니라 이곳 水電力省의 전기송변전 설비책임자로 있는 尹岐泳씨(58)도 한몫을 하고 있다.

韓電에서 28년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尹씨는 오만정부의 특수기술직요청에 의한 韓·오만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80년 초부터 이곳에서 일해오고있다. 그는 水電이나 기타 사고의 경우 오만기술자들이 몇시간 걸려야하는것을 순식간에 끝내버려 「전기박사」로통하고 있다.

尹씨는『처음 이곳에 왔을때는 전기시설만있고 기술자는 없는 상태여서 밤중에 정전이되거나 사고가 나면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실정이었다. 지금은 오만사람들도 상당히 기술을 익혀 간단한 고장은그들이 직접 수리하고 복잡하고어려운 사고만을해결해준다』면서『섭씨40~5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때문에 이곳 생활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들이 한국기술을 높이 평가해주는 맛에 그런대로 보람을 찾고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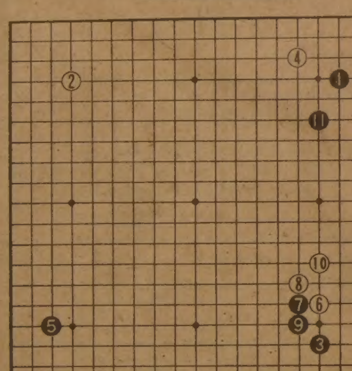
尹씨는 한국기업이 이곳에 진출할여지는 많이있지만 우리기업들은 작은공사를 하나씩 따낼생각을하지 않고 큰공사에만 욕심을 부리는 한탕주의 사고방식때문에 외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이익을 주고있다고 안타까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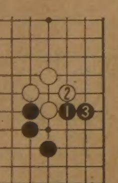
第14기 名人战 挑战者決定리그

第3局 第1譜 1~11 (각5시간·덤5집반)

白 (4段) 李相澈
黑 (7段) 河燦錫

黑,취향의 勢力布石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팬들은 기억이 희미할지 모르지만, 河7단도 알고보면 일본기원서 자란기사이다. 일찌기 14살때 연구생이 되었다가 17살에 입단하여 순조롭게 승단, 5단에 오르자마자 병역관계로 귀국하여 한국기원에 적을옮긴채 오늘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순전히 일본棋界에서 자란 기사로서 지금까지 각新聞棋戰에서 올린 성적은 이루 헤아릴수가 없을 정도이다. 특히 73년부터 75년까지는 그의 전성기로서 王位, 國手, 棋王등 타이틀을 차례로 쟁취하여 막강의실력을 과시했다.

다만 76년도부터 정상에서 멀어졌으나 그래도 최근까지 해마다 두세개이상의 타이틀戰본선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재기의기회를 기다리는 중인데 그를위한 다수의 팬들은 역시 뭔가 보여줄 날을 학수고대하는 모양이다.

名人戰에서도 제8기부터 10기까지 好局을 많이 남겼고 제13기에는 徐奉洙7단에 패하는등 활약이 컸으나 한번도 도전권을 따지못한것은 아쉬운일이다.

黑7, 9는 말할것도 없이 좌하귀 黑5와 호응하는 세자전으로 임기의 취향인가 싶어 보인다.

黑11은 대체로 참고도처럼 黑1、3의 점석을 택하는데 河7단은 우상귀에 선착했다. 그 이유는 다음보에서 알아본다. 【一凡】

聖書서 靈感얻어

★美石油업자 이서 試錐

미국의 한 석유탐사가가 구약성서의 귀절에서 영감을 받아 이스라엘 북부하이파근처 갈멜지역에서 석유시추작업에 착수했다.

석유탐사회사의 소유자인 앤디·소렐씨는 구약성서 申命記33장24절 즉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인에셔의 자손들에게『너희들의 발을 석유로 적시리란』고 약속한 귀절에 착안,지진도와 에셔의 후손들이모여 산 지역을 알려주는 고대지도를 연구한 끝에 시추작업을 벌이게됐다는것. 【예루살렘=AP】

사다트동생등拘束

★이집트, 不正蓄財등으로

故사다트 前이집트대통령동생 에스마트·사다트씨(57)와 그의아들 3명이 일련의 정치부정과 부정축재혐의로 구속됐다고 이집트검찰청이 지난31일발표했다. 【카이로=UPI】

◇海上 세계일주가 꿈인 앤더슨양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줄리·앤더슨양(20)이 최근 英國 블랙풀 인근의 노트 엔드에서 열린 한미인 선발대회에서 미끈한 몸매를과시하고있다。앤더슨양의꿈은 해상세계일주하는것이라고。【노트엔드=1日AP發=聯合】

화났을때 참아야 健康

★美심리學者 새學說 주장

화가 났을때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것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일반적인생각은 그릇된 것이며 화가 누그러 질때까지 참고 기다리는것이 몸에좋다고 한 美심리학자가 주장.

사회심리학자인 美캐럴·타브리스여사는 심리학誌11월호에서 섣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순것을 충고하는 종래의학설에 이의를 제기,『참을성을 갖고 기다리면 어떠한 감정적동요도 가라앉게 마련』이라고 설명.

그녀에 따르면 여러가지 연구조사결과 화를 내는것은 그같은 감정을 증대 또는 연장시킨다는 사실이밝혀졌으며 혈압을 올리지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화나게 한 상대방이 마음이 가라앉을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뉴욕=AP】

고양이가 5살主人 구해줘

蘇서 큰뱀과 싸워

한 수코양이가 5세의주인을위협하는큰뱀과사투를 벌여 그소년의 생명을구해 주었다고 소련신문「사회주의산업」紙가 2일 보도했다.

이신문에 따르면 흑해연안의 투아프세市에서톨야·포타포비란는 소년이 가는 나무뿌리로 적황색 수코양이 바스카를찌르면서 놀고 있었는데 나무뿌리가 고양이를 빗나가면서 방바닥의 틈으로들어가자 갑자기 그 틈에서 큰뱀이나와 소년을 물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고양이가 즉시, 뱀을공격, 뱀의 꼬리를 물면서 싸움을계속하는 사이에 어른들이 달려와 뱀을 잡았다는것. 【모스크바=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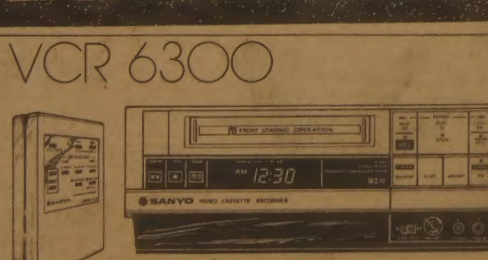
海外토픽

◇17세의 妖艶한자태 올해 17세인 영국 우스터셔 출신의 주너·무어양의 요염한 자태。기타를 잘연주하며 노래도 잘하는 무어양은 현재 여사무원과 시간제모델을 겸하고있는데 모델만 전념하는것이소망【AP】

SANYO 년말 대매출

크리스마스 비데오 스페샬

VCR 6300



Wireless 12 Function Remote
105 Channel Capability (105 채널 녹음가능)
8 Day · 1 Event Timer
Reg. $ 1395 Spec. $ 995

VCR 4000

3 Day · 1 Event Programming
Remote Pause/Still Frame
Reg. $899 Spec. $699

Power! Precision! Performance!
THE AUDIO SOLUTION VALUE! NOW ONLY
$ 499.
… 값이 싸고, 완벽한 스트레오 세트를 구입하세요 …
(STAND는 포함안됨)

FINCHWEST MALL
3467 WESTON RD. WESTON.
WESTON & FINCH
☎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SANYO Makes Life's Good Things ...better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쎌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a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일요일(오후4시부터) 쇼핑은 25불 할인받는 삼복식품으로 오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튼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광고문의 533—236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八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순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충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무소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Dish Washer구함. 점심시간: 월−금 11:30am−2:30pm
◉경험있는 요리사 구함. 저녁시간 4pm−11pm. 주6일
114 Laird Dr. 전화: 421−6016(오후 2:30이후)

비데오머신가게 메니저 구함.
남·녀 불문. 아침11시~저녁11시
전화: 821−4791, 638−0713

스토아 여자 파타임 캐쉬어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488−1634

경험있는 남자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풀타임.
전화 : 598−2546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스토아 헬퍼 구함.
풀타임 혹은 주말(Jarvice & Bloor)
전화 : 922−4135

캐쉬어 구함.
Keele & Lawrence 근방
전화 : 248−6442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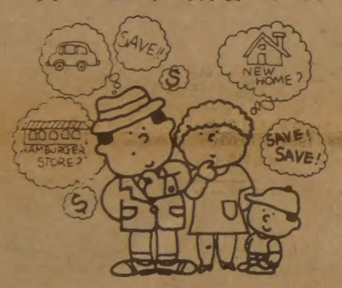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하루 7시간. 전화: 532−6143 · 532−9638

경험있는 여자 또는 남자 캐쉬어 구함.
시간: 오후4시−밤11시까지. 풀타임 가능.
전화: 625−1620(미시사가 지역)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5 일에 $ 15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개 인 지 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핀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 재봉은 하지만 재단 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매 매

재봉틀 Simpson's 나무책상포함 ◉$195.00
Good−Condition.
전화: 767−1702 김(오후6시 이후)

빌딩과 잘 꾸며진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이층에 살림집이 있음. QUEEN STREET EAST.
아스킹 : $79,000+스탁 전 화 : 465−1005 MR. Kung

형편상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9시 문닫음)
주매상: $4,000 렌트: $450 로타리오와 비데오머신에서 $1,000수입 7050 Air Port Rd.(at Derry Rd.)

당구장 매매 함.
비데오 머신들과 스넥바 있음. 좋은 Plaza내.
전화: 531−9216(오후5시−밤12시) GEORGE

깨끗하고 전망좋은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4,000~$4,500 Video Arcade(licence 있음)
전화: 560−0612 MR. CHUNG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몬트리얼시내 영어지역.
(Plaza 내 2,200Sq.Fit.) 주매상: $10,000(81년도 세무보고 $468,650) 렌트: $780. 5년+5년. 영업시간: 주60시간(일요일 닫음) 시간연장 가능함. ◉백인한주인이 18년간 운영해온 안정된 가게임.아스킹: $5 90 00+스탁(4만) 캐시다운: $55000 잔액: 10%모기지. (514)691−4751, 691−3704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Dry Cleaning depot. 매매
년매상 : $50,000
전화 : 787−1549

자동차 매매. ▲'73 PONTIAC PARISIENNE. 350 Auto. 쌍 마후라. Power Handle. P.B. P.W. 에어콘. 76000마일. Excel Con 여자운전. CEPT. $1,850. ◉전화: 241−6392

◉선물용 Gift Shop 쇼우 케이스(4ft.) 5개
◉중간 유리 Shelving 3개
전화 : 656−0867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200−$3,500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바람.
272 Jane St. (at Bloor)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아파트 딸린것).
Mr. Jones 전화 : 889−8654
W.R. CASE REALTY LTD.

버라이어티·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Bloor & Indian Rd.
전화 : 535−6838

전망좋은 그로서리가게, 토론토 북쪽 15분거리
주매상: $6,600이상, 아스킹: $79,000 렌트: $880
3년+10년 옵션 전화: 833−6318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 Smoke & Gift shop
주6일 open 주매상 6,500~7,000
리스 1990년 렌트 1,100(2층아파트 포함)
• Coffee & Snack shop Shopping mall내
6일(open)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Option.
• 드라이 크리닝 다운타운 고급주택가에 위치함.
주매상 3,000불 렌트 1,000불 리스 9년
• 도낫스 주 9,000불 리스 15년
A.E. LE PAGE Real Estate 전화: 741−9170 Mrs. 우.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셋방(1층 Flat)−1Bedroom Apt. 다운타운지역
차고·세탁기·히팅등 포함 월 $430
독신자 또는 부부. Christie×Dupont(532−9581)

사무실 대여함.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890sq.ft.
전화 : 535−8801

콘도미니움 For Rent or Sale. ◉12월1일부터.
Victoria Park & Danforth(써브웨이 건너편)
◉렌트: 월 $700(관리비 포함) ◉전화: 694−4812

방세놓습니다. Victoria Pk. & Finch코너
여자분에 한함.
전화 : 497−4221 Mr. 김

사 람 찾 음

수원사시던 홍정애씨를 찾읍니다.
전화: 294−5750 MRS. 리.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글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성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광고문의 533−2361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 진 .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선 물 센 타

미·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인벤토리대매출
돈을 더 지불하십니까?
Your Drapery Shop
at Rockwood Mall
30% OFF
ANY VERTICAL DRAPES, WINDOW
SHADES AND BALI (VENETIAN) BLINDS
LINEN $7.25 yd.
LABOUR $3.00-$4.50 yd.
SHEERS $6.50 yd.
WE OFFER YOU A HUGE SELECTION OF SPECIALS
I Beam Rail
5' — $2.80
6' — $3.35
7' — $3.80
8' — $4.20
9' — $4.85
10' — $5.20
11'-16' — $8.99
GREAT SAVINGS ON ANY SIZE TRAVERSE SINGLE OR DOUBLE ROD
Rucky
DRAPERY
CUSTOM MADE OR READY MADE
ALL KIND FABRICS
ALL KIND SHEERS & LINES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MISSI. ONT. L4W 1V5
625-0698
영업시간 : 월요일~토요일
9 : 30~9 : 30PM
대표 : 최 원 보